

머 리 말

흔히 어른들은 지난 날 자신들의 청소년기로 미루어 지금의 청소년을 보는 버릇이 있다. 지내 보았으니 자기들이 청소년기를 더 잘 알고 있고 또 자신들의 생각이 더 옳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그때의 자기의 문제, 사고, 이상, 규범 등으로 오늘의 청소년을 보고 청소년 문제를 해석·판단·대처하려 한다.

그러나 이를 한걸음 물러서 생각해 보면, 20년 전의 청소년들이 지금 어른이 되고 그때의 어른들이 청소년을 문제삼아 우려하던 말들을 이제는 자신들이 “요새 젊은 놈들은……”라는 접두사로서 발언을 시작하는 한 정형화된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이다. 정형화된 인식이란 한 마디로 청소년들을 어른의 안경, 좀 더 과장되게 말한다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을 말한다.

이 책은 바로 우리 어른들이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는 어른들의 안경이 정말로 청소년들을 보는 데 적합하고 타당한지에 관해 생각해 보고자 개발되었다. 지금껏 우리는 청소년을 문제의 관점에서 그 증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하려는 ‘원인-결과’의 좁은 틀로서 보아 왔다. 이를 통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총체적인 시각이 요구되는 청소년 문제에는 이러한 접근의 오류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청소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들에 관한 일반화된 지식이나 사실보다 역동적이고 발달적인 측면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상황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나 통찰을 보다 강조함을 의미한다. 청소년 문제를 역동적이고 발달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청소년들의 관심의 상태, 청소년들의 경험된 딜레마 그리고

청소년들과 어른들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도출된 다양한 문제상황에 대한 이해나 통찰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어른들이 쓰는 안경의 적절성은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부딪히는 공통의 관심사의 주변에서 명확하게 보여질 수 있다.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 책(시리즈)에서는 청소년과 부모관계, 청소년과 학습·진로문제, 청소년과 이성문제, 청소년과 비행, 그리고 청소년과 정신건강 등의 5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로 어른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각 영역별로 제시된 10개의 주제들은, 이 책을 읽는 어른들이 청소년들에 관해 지금까지 당연시해 왔던 전제들의 타당성을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그 반성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끝으로, 이 자료집을 개발하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을 준 체육청소년부와 개발과정에 직접 참여한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원 부모교육 프로그램 연구진들의 창의와 노고에 치하를 드린다.

1990. 12

한국청소년연구원
원장 이 윤 구

차 례

10대가 알고 싶어하는 것

성교육은 어떻게 하나

자위행위는 금지된 장난인가

청소년들은 성충동을 억제하여야 하는가

청소년들의 성의 향방은 어디로

청소년의 이성교제 과연 문제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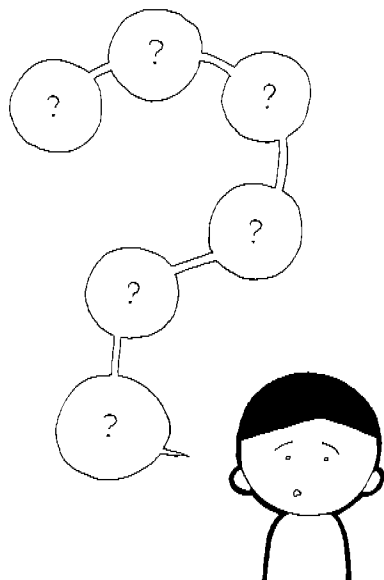
순결을 잃었어요

열 일곱살의 미혼모

성폭행 사회의 책임인가

지금 맥의 아이는

10대가 알고 싶어하는 것



요즘 방영되고 있는 모 회사의 청량음료 TV광고는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중·고생들의 소풍가는 모습을 영상처리하여 그 변화과정을 비춰주고 있다. 처음 그 광고방송을 보면서 느꼈던 감회는 꼭 잊어버린 그 시절을 되찾은 듯한 기분이었다. 정말 우리의 그 때 모습이 저랬는가? 요즘의 청소년들과 비교하여 세련되거

나 영리해 보이지는 않지만 순박하고 티없는 모습은 훨씬 청소년답다는 느낌을 갖게 하였다. 상담을 통해서 만나는 부모님들은 한결같이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정말 요즘 애들은 잘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를 자주 한다. “내가 저만한 나이에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어떻게 감히”하는 식으로 자녀의 생각과 행동들을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반면에 자녀들의 경우에는 부모의 교육방법에 대단한 불만을 나타낸다. 자녀들은 부모들이 보수적이고 자신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만을 강요하는 낡은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만 판단한다.

어느 시대이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세대차이가 있었지만 문명의 발전이 급격화된 요즘에는 자녀와 부모 사이의 세대차이는 더욱 심화되어 가는 느낌이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자녀들이 성장해가면 걱정과 염려는 더욱 많아지는 것 같다. 관심세 된 노모가 육십세 된 아들에게 길조심하라고 당부하는 노파심은 세상 어느 부모나 똑같은 마음일 것이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한결같다고 하더라도 무엇이든 지나치게 부모 중심적이고 매사를 자신의 뜻에만 맞춰 자녀를 교육하려 한다면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자녀에게는 오히려 지나친 간섭으로 여겨져 반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소위 문제아라고 지칭되는 많은 청소년들 중에는 지나친 부모의 과잉통제와 과보호로 말미암아 벗어나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십대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 ! 이 점들을 우리 부모들이 이해한다면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는 손자병법의 가르침처럼 자녀를 바로 알고 그에 맞게 교육한다는 것은 보다 훌륭하게 부모의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춘기(청소년기)란 인생에 있어 하나의 커다란 전환기이다. 무엇이든 변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진통이 따른다. 즉 어려움 없이 쉽게 변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사춘기는 남녀의 뚜렷한 성징이 나타나는 성적 변화기이기 때문에 이에따라 많은 심리적·정서적 변화가 함께 나타난다. 남자의 경우 어린 티를 벗어 남성다운 모습으로 변화한다. 근육이 발달되고, 목소리가 변하며, 체모가 생성되는가 하면, 특히 몽정을 대부분 경험하게 된다. 개인차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민학교 6학년부터 중1~2학년 사이에 사춘기적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여자의 경우는 남자보다 평균 2년 정도 빠르게 사춘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월경이 시작되고 체모가 생성하며, 가슴이 발달하고 피부가 고와지게 된다. 이렇게 남성, 여성의 뚜렷한 표징과 아울러 신체적·정서적 변화도 보이기 시작하는데 특히 이성에 대한 호기심과 더불어 자신의 성에 대한 정체감 확립을 위한 혼란을 겪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살펴본 그들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성기관의 구조와 기능, 성적, 생리적 현상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보인다. 예를들어 남자의 경우 여성의 성기관에 대한 질문과 임신이 되는 과정, 생리현상(월경)에 대한 질문 등이 많아진다. 이와같은 질문을 하는 남자 청소년은 대부분 초기 사춘기에 해당하는 중학교 저학년 학생들인데 성지식이 무지한 상태에서 막연한 호기심, 또는 또래 친구들로부터 들었던 얘기를 확인하려는 경향이 많다. 최근에는 포경수술이 비교적 일반화되면서 포경수술에 관한 질문이 늘어났다. 중학교 고학년 이상의 학생은 여성의 신체구조를 사진이나 만화 혹은 비디오를 통하여 보고난 후 성기관의 기능이나 명칭 등을 질문해 온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정상적인 심의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제작된 만화나 비디오를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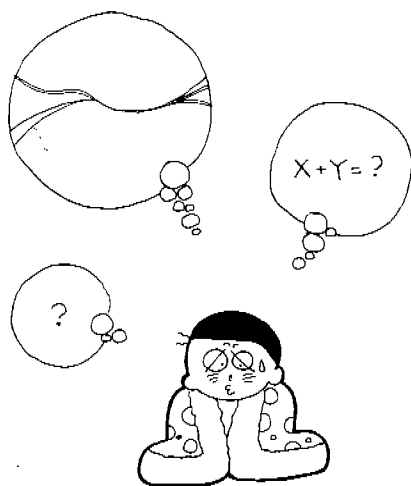
고 배운 상식이기 때문에 올바른 성기관의 명칭이나 정상적인 인간의 성행동을 알고 있지 못하다. 대부분 은어나 비속어, 그리고 변태적 인간의 성행동을 '정상적인 것으로' 착각하여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점에서 자녀의 올바른 성교육을 위해 부모의 포용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자세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사춘기 여자의 경우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여건때문에 나타난 영향인지는 몰라도 남자에 비해 성적 호기심이 밖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보편적으로 사춘기에 접어든 딸이 있는 어머니는 초경 이전에 초경의 처리에 대한 교육 및 생리현상들을 가르치고 역시 학교에서도 초경지도를 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남자 애들보다는 비교적 올바른 성지식을 가진 아이들이 많다. 그러나 우연이든 의도적이든 점차 여자 청소년들도 각종 선정적이고 음란한 매체를 접촉하게 되고 이로 인해 성적 호기심이 전에 비해 증가되고 있음이 상담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둘째로 자위행위와 성충동에 대한 갈등이 심하다는 점이다. 사춘기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이 성숙해가는 시기이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는 자신에게 나타나는 성욕을 어떤 방법으로든 처리하고픈 욕구가 강하게 표출되고 또한 이성에 대한 접촉 욕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사실상 이 시기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성행위를 통해 욕구를 충족한다는 것은 차단되어 있다. 현대의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성욕은 본능적인 욕구라고 이야기 한다. 인간이 천부적으로 타고난 이 본능적인 욕구를 아직은 공부를 해야 하고 대학에 가야 하며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성욕을 가지면 안된다고, 억압한다고 해서 자녀의 성적 관심이 유보되고 잠재워질 수 있을까? 그렇다고 자녀의 성적 성숙을 인정하여 이제부터 너희의 자유의사에 맡긴다고 방

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물론 극히 성이 개방된 외국에서는 자녀의 성적 행동을 부모의 일방적인 억압보다는 자녀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은 일부에 불과하고 10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자세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점은 사춘기의 성욕이 어른의 성욕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나타나는 성충동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수시로 갈등을 겪고 있다. 그 중 가장 보편적으로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는 방법은 바로 자위행위이다.

부모들 중에도 10대 사춘기 시절 자위행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특히 남성의 경우 대부분 사춘기에 접어



들면 스스로 혹은 친구를 통하여 자위행위를 알게 되고 그 행위를 하게 된다. 남성에 비해 적은 수이지만 점차 성이 개방화되고 성의식의 변화를 보이면서 사춘기 여성의 자위행위도 증가되고 있다. 자위행위가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다만 무엇이든 지나치면 그 지나침에 문제가 있다고 하듯이 그 점에 보다 문제성을 두고 있을 따름이다. 청소년들의 성충동과 그에 따른 욕구 해소방법으로서,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는 자위를 통한 성행동은 권장할 사항도 아니지만 막연한 부모의 성적 수치감이나 그릇된 성지식으로 말미암아 통제할 것도 아니다. 이는 더욱 자녀의 성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정신적 장애까지 일으키게 하는 한 요인임을 생각해야 한다.

셋째로 직접 성행위를 통해 야기된 임신 및 유산문제, 성병과 왜곡된 성관념 지식으로 인한 심한 열등감 등으로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점이다. 앞서 말한 성호기심, 자위행위, 성충동 등은 비교적 국민학교 고학년, 중학교 저학년 학생층의 청소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문제이지만 직접 성행위(성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문제들은 중학교 고학년 이상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성장한 부모세대들에 비하여 요즘의 청소년들은 모든 면에 크게 부족함없이 자라고 있다. 20여년 전에 비해 청소년들의 평균 신장이나 체중은 비교도 안될 만큼 변화했다. 오히려 영양이 과잉공급되어 청소년층에도 성인병이 나타날 정도로 의식주 모든 면이 옛날에 비해 성장하였다.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도 개방화 물결을 타고 부모가 청소년일 때에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각종 향락 퇴폐산업들이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다. 사춘기 시기도 비례하여 대단히 빨라지고 있다. 20여년 전만 해도 여자의 초경 연령이 보통 15~16세(중3~고1)였던 것이 이제는 12~13(국5~6)정도로 크게 낮아졌다. 자녀가 일찍 건강한 체형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현상이다. 그러나 2차 성징이 발현한 이후 결혼에 이르기까지 성적 실업기(?) 역시 길어졌다는 의미도 있다.

요즘 고등학생은 교복이 자율화된 이후 거리에서 만나면 성인인지 청소년인지 언뜻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에 비례하여 정신적으로는 신체적 성장에 버금가게 성장하였는지 실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학식과 신체적 성장은 대단히 앞서거나 정신적·인격적 성장은 예전에 비해 뒤쳐진다는 느낌이 일반적으로 요즘 부모들이 갖고 있는 안타까움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제도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 편향되어 전인교육을 담당해야 할 학교가 학식만을 전달하는 곳으로 전략한 현실임을 감안할 때 성적인 성숙속도가 매우 빠르고 주변환경 역시 청소년들에게 자극적인 면이 범람하는 조건에서 인격적 성숙이 미숙한 청소년들이 그들의 강한 호기심과 충동을 행동화 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인신매매 사건이나 성폭행 사건, 그리고 미혼모의 증가는 단지 그들만의 시대적 문제가 아니라 이와같은 상황을 예견하고 교육하지 못한 부모(기성인)들의 불찰에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물론 모든 청소년들이 성적 문제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라 하더라도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내 자녀가 아직은 문제성이 없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진지하고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하는 적극적

인 부모의 자세가 필요하다. 성적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들과 상담하면서 느끼는 점 중 하나는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부모는 자녀에게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또한 문제가 발생하면 부모가 먼저 좌절하거나 후회하는 소극적이고 방관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한다.

청소년들에게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성적 문제가 동일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성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 자녀의 인생이 망쳐지는 것도 아니다. 보다 수용적이고 적극적인 부모의 자세는 자녀의 성적 문제의 발생을 예방할 수도 있지만 혹시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정신적 신체적으로 문제를 최소화하는 좋은 결과를 얻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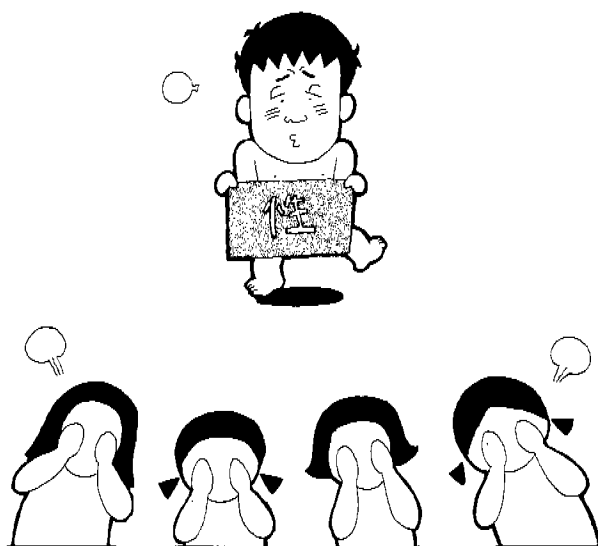
사실 인간의 삶 전체에서 성이 차지하는 부분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이렇게 인간생활에 중요한 성이라는 것에 대해 얼마나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건전하게 생활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실제로 우리 부모들은 성이란 부끄러운 것이며 드러내길 꺼려하는 금기 사항으로 회피하는 환경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다. 이런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성을 드러내거나, 노골적으로 질문해오는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이해시키기에 불편해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녀의 성장에 맞춰 사실을 직시하고 그들의 욕구와 행동을 앞서 파악하여 그에 알맞은 교육을 선행하는 부모의 자세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10대 자녀들이 알고 싶어하고 또한 성적 갈등을 느끼는 사안들이 이것만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내 자녀가 무엇을 알고 싶어하고 무엇에 흥미와 갈등을 느끼는지 하는 점에는 물론 개인차가 있기 마련이다.

끝으로 얘기하고 싶은 점은 항상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

엇을 앞서 통제하고 조정하겠다는 부모 위주의 교육적 자세보다는 내 자녀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갈등에 혼란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마음의 문을 열고 자녀의 모든 점을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준비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성교육은 어떻게 하나



자녀교육에 관한 열성이라면 우리나라 부모들이 세계적으로 단연 상위권일 것이다. 천연자원이 변변치 못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이만큼 성장한 이면에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성적인 노력이 숨겨져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자녀가 조금이라도 좋은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물과 시간을 아끼지 않으

며 온갖 정성을 다하는 우리 부모들이 있었기에 훌륭한 인재들이 양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이 있다. 청소년들과 상담하다보면 그들로부터 자주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된다.

“공부하는 기계.” 어린 청소년들이 과중한 학업부담 때문에 불평하는 정도의 단순한 얘기로 스칠 수 있겠으나 사실은 공부, 성적, 출세라는 도식적인 부모의 기대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된 영양공급이 소홀해진데서 비롯된 얘기라 생각할 수 있다.

인격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학식이 많고, 지위가 높고, 돈이 많은 사람만은 결코 아닐 것이다. 사회윤리와 도덕에 부합하며 책임감 있으며 자기역할에 충실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인격적인 사람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 부모들이 소홀히 생각하며 지나쳐버린 자녀교육 중 하나가 바로 성교육이다.

물론 최근에 와서 자녀의 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긴 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 주위에서 청소년의 성에 관련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성폭행, 인신매매, 음란 비디오 및 출판물의 범람, 퇴폐성 유흥업소의 성행 등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청소년들이 오염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졌으며 실제로 사건에 연루된 어린이, 청소년들이 증가되기 때문인 것이다. 몇 년전 서울 모국민학교 화장실에서 발생한 국민학교 여학생의 성폭행치사 사건이라든가 최근 청소년들의 집단 성폭행사건들이 결코 이웃집의 얘기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청소년상담실로 상담해온 사례들 중의 반 이상은 성에 관련된 문제이다. 특히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상담내용 중 성에 관련된 문제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

만 대부분 성교육의 무지에서 오는 혼란과 더불어 부모의 관습적인 저항감이나 자신감의 결여 때문에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다.

성교육 하면 일반적으로 연상되는 것이 성행위 교육이다. 그러나 성행위란 성교육의 극히 적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 성교육이란 자녀의 원만한 성장발달과 성적 성숙을 도와 사회윤리 및 도덕과 부합하는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이끌어 주는 인간교육을 의미한다. 따라서 올바른 성교육을 받으며 자란 청소년은 자연히 건전한 인격자가 될 수 있기에 성교육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성교육은 시대적 상황이나 주위환경에 따라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이 다를 수 있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난해한 문제를 순식간에 풀어버리는 요즘과 주산을 이용하던 옛 시대와의 교육내용이 달라야 하듯이 성교육의 내용도 당연히 변화가 있어야 한다. 유교적 사상이 사회의 가치규범이 되었던 이전 세대의 성교육과 다양한 가치체계가 서로 공존하는 자유화된 현대의 성교육은 다를 수밖에 없다. 남녀칠세부동석이란 가르침이 남녀칠세자동석(?)이란 말로 바뀌어버린 요즘에 끝까지 남녀는 칠세 이후엔 함께 자리를 해서는 안된다고 자녀에게 가르친다면 그 말이 과연 설득력이나 교육적 의미가 있을까? 자녀에게 우리 부모는 고루하다는 인상을 남기게 될 뿐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인이 되라”는 서양 격언처럼 변화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이 시대에 올바르게 적응하도록 알맞은 성교육을 부모들이 실시할 수 있는 슬기로움이 필요하다.

자녀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화목한 가정분위기와 서로 존경하며 아껴주는 부부관계

를 통하여 자연스러운 성교육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말이나 글을 통해 가르치는 것보다 부모의 일상적 생활자세나 태도를 통하여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동일시 해가는 과정에서 남성다움을 배우게 되며 마찬가지로 딸은 어머니를 통해 여성다움을 익히게 된다. 흔히 아내를 맞을 때 그 어머니를 보면 된다는 얘기처럼 일상적인 생활속에서 보여지는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 성교육은 시작되는 것이다. 또한 아들은 어머니의 모습을 통하여 이성관을 형성하며 딸은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이성관을 형성하게 된다.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닮은 이성에 관심을 보다 많이 보이는 것처럼 평상시의 부모 모습은 자녀에게 귀중한 시청각 성교육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예컨대 여자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태도를 보이는 남자들의 대부분은 그 아버지의 일상생활 태도를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많다. 어머니가 지나치게 남자를 두려워하고 결혼생활에 회의적 태도를 보인다면 딸 역시 그녀를 닮을 것이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점은 실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점이니만큼 가정내에서 부부가 서로 존경하며 위해주는 태도는 바로 내 자녀의 건강한 인격형성을 위해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둘째로 자녀의 성장수준에 맞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솔직하고 당당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성에 관한 대화는 자녀와 뿐 아니라 일반적인 대화에서도 대단히 어려운 주제이다. 때문에 성인들도 가까운 친구가 아니면 편안히 얘기할 수 없다. 이 점은 무엇보다 우리의 문화여건이 성을 금기시했고 성에 관한 한 막연한 죄의식(?)을 갖는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 하물며 부모로서 자녀에게 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담스럽고 수치스러운 주제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성교육이란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중요한 교육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먼저 부모가 자신의 수치심이나 불안감을 극복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아무리 옳고 타당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얘기하는 사람이 주저하거나 두려워한다면 자녀는 그 얘기의 내용보다도 왜 부모가 어색하고 불안하게 얘기를 하는가 그 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한 예로 아들이 여성의 생리현상(월경)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 “남자에게 별 걸 다 묻는구나”하며 질문을 무시하거나 당황하여 “응, 그것은…… 그것은……”하며 주저할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당당히 왜 아들이 여성생리에 관심을 갖고 질문하게 되었는가? 아들이 알고 있는 여성생리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대화를 할 수 있을 때 올바른 여성의 생리현상도 이해할 수 있으며 자녀의 수준에 맞는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부모가 얘기하기를 두려워한다거나 편안히 대화할 수 없는 마음자세라면 서적이나 기타 교육자료를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성에 관한 질문을 하는 청소년 자녀들은 대부분 그 질문을 하고자 하는 어떤 충동이나 동기가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질문 이면의 동기나 영향들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점이다.

셋째로 성에 관한 대화를 나눌 때는 가능한 한 개인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자녀가 무심코 성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있지만 자녀의 행동이나 태도를 부모가 관찰하여 특별한 변화를 보일 때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이 때 부모는 성급히 가족 앞에서나 혹은 자녀가 대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데도 일방적으로 부모의 얘기만 하기 쉽다. 예컨대, 자녀의 방에서 음란서적이 발견되어 당황하며 분노하고 있던 부모가 학교에서 귀가한 아들을 보자 곧바로 가족들이 있는 앞에서 “어떻게 이런 책을 볼 수 있니?”하는 식으로 나무라는데 이런 경우 교육적 의미에서 아무런 성과없이 감정만 상하게 된다. 때문에 이와 비슷한 경우가 생겼다 하더라도 충분히 부모의 격한 감정을 진정시킨 후 자녀와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차근차근 얘기를 풀어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자녀도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할 것이며 부모가 왜, 무엇때문에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 성교육은 과학적인 면과 윤리·도덕적인 면을 병행하여 가르쳐야 한다. 예전에도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성교육을 했었다. 요즘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교육의 내용은 극히 단편적

이고 행위적인 면에만 치우친 느낌이다. 예를 들어 “남자는 도둑놈이다, 여자는 여우다”하는 식으로 이성에 대한 혐오감을 자극하여 접촉을 금하려고 하는 교육이라든지, 아들에게는 보다 관대하고 딸에게는 지나치게 통제적인 부모의 태도 등이다. 단순히 이성을 가까이 하지 말라, 여자는 특히 몸가짐을 조심해라 하는 식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교육이 사춘기 자녀에게 부모의 기대만큼 효과가 있을까?

사실 부모들의 기대로는 한창 학업에 몰입하여 공부에만 신경을 써야 하는 자녀가 성의 문제로 혼란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될 수 있으면 성에 관한 관심이 청소년기 이후 즉 학업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20대이후에 나타나기를 기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모들이 지난 자신의 청소년기를 회상해보면 느낄 수 있듯이 사춘기란 낱말 그대로 이성에 관심을 갖게 되고 성에 눈을 뜨는 시기이다. 때문에 억압이나 엄격한 훈계만으로 문제없이 사춘기를 보낸다는 것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점점 더 어려워진다. 오히려 적극적이고 사실적인 교육방법, 그리고 포용적인 부모의 자세가 사춘기의 자녀의 성적 혼란을 완화할 수 있다.

어느 아버지는 중학교 1학년인 아들과 자주 등산을 한다거나 목욕탕에 함께 다니면서 남성의 성적 성숙과정과 특히 몽정이나 자위행위에 관한 자신의 경험, 생리적 현상들을 얘기해주며 동시에 성충동에 대한 자제심의 중요함을 설명해준다고 한다. 사람은 누구나 올바르게 알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게 마련이다. “무식이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모른다는 것은 때에따라 편협한 지식과 저질적 충동에 자극되어 불건전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정신적 장애현상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다. 성욕은 억압보다 승화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엄격한 도덕

적 성교육에 앞서 과학적인 성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끝으로 자녀의 올바른 성교육을 위해서는 부모의 건전한 성가치관과 더불어 건전한 생활자세가 필요하다. 요즘 우리사회에서 향락산업과 저질퇴폐문화가 성행하는 것은 분명히 청소년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풍토는 아니다. 바로 우리 기성세대이며 부모들인 것이다. 아무리 이 세대를 본 받지 말라고 얘기해도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것들이라면 자라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오염되지 않을 수 있을까?

사회정화란 아무리 강조해도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반성과 변화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거리에 무수히 붙어있는 선정적인 영화광고 포스터, 홍미와 자극만을 강조하며 무분별하게 제작되고 있는 각종 인쇄매체들, 불법으로 제작되고 유통되는 음란 영상매체들, 성을 상품화하여 질척거리는 각종 유흥 향락업소 등 사실 잠시도 안심하고 집밖으로 자녀들을 내보낼 수 없을 만큼 우리사회는 퇴폐화되어 가고 있다. 수요가 있기에 공급이 되어지는 단순한 경제원리만을 생각해도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우리사회 전체가 점점 오염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청소년 자녀의 올바른 성교육을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여러 방안도 중요하겠지만 기성세대가 먼저 자각하여 이 오염된 사회를 정화하기 위한 개인적 자기성찰이 절실히 필요하다. 나는 그래도 너만은 건전하라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기대는 사실 방조나 다름없다. 부모들의 건전한 성가치관은 바로 내 자녀가 학습하여 형성하는 건전한 성가치관이 되는 것이다.

성교육이란 인간교육이다. 단순히 성행위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학식이 높고 훌륭한 지위를 차지했다 하더라도 왜곡된 가치관과 무분별한 성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결코 인생

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자녀의 건강한 신체적 성장과 건전한 정신적 성장은 넉넉하고 균형있는 부모의 애정을 바탕으로 가능한 것이다.

“노이로제에 걸린 우수한 대학생을 만들기보다는 건강한 근로자로 만든다”는 것이 설머힐학교 닐교장의 교육관이다. 우리 부모들도 성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실생활에서 모범이 되고 전인적 교육에 관심을 갖는 슬기로움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자위행위는 금지된 장난인가



서울의 한 청소년상담소에서 1989년 1년간 전화상담내용을 통계처리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총 상담건수 1,483건 중 청소년 상담이 1,028명으로 69.3%인데 자위행위에 관련된 상담이 67명(6.5%)으로 그중 63명이 남자청소년이었다. 이는 자위행위로 고민하는 남자청소년이 많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사실 10여년전에는 청소년상담 중 남자청소년들이 자위행위에 대해 고민하는 상담건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다. 그러나 방송이나 신문,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자위행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많았고 또한 학교 성교육 시간이나 부모들의 보다 적극적인 성교육의 결과로 예전에 비해 상대적인 상담건수는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자위행위는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성문제의 한 부분이다. 다음은 편지를 통해 상담을 요청한 어느 고등학교 남학생의 고민사례이다.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용기를 내서 선생님께 문의드립니다. 저는 요즘 하루에 한 번 정도 자위행위를 합니다. 방학이 되어서 조금은 마음이 풀어지고 시간이 많아서인지 전보다 심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여름철인 요즘에는 잠지책을 보거나 밖에 외출을 하면 옷차림이 많이 노출된 여자를 보게 되고 그러면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 대학생인 사촌형에게서 들은 얘기인데 자위행위를 많이 하면 체중이 줄고 키도 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후부터는 항상 마음이 편치 못하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반복이 되니 괴롭습니다. 선생님, 자위행위를 하면 신체적 이상이 있습니까? 또한 잘못된 저의 습관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선생님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청소년들은 자위행위에 대하여 나름대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 그 고민하는 유형을 보면 실로 다양하다. 위의 경우처럼 자위행위와 신체적 성장과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것과, 결혼이후의 성생활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고민하는 사례, 막연한 죄책감이나 불안감으로 지나친 사춘문제로 불임

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례, 기억력 감퇴와 관계있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것 등등 대단히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음을 상담을 통해 접하게 된다.

자위행위란 무엇일까? 폴란드의 정신과 의사 이메린스키는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자위행위란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손이나 다른 어떤 물체로써 성기를 자극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정의를 생각해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어느 형태로든지 자위행위를 경험했거나 하고 있음이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사람의 기본적인 본능은 식욕과 성욕이다. 아무리 훌륭한 성인이라도 먹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다. “사흘 굶어 도둑질 안하는 사람 없다”는 속담이 사람의 본능적인 욕구를 잘 표현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존을 위한 본능적 욕구에 성욕이 있다. 이것도 역시 본능적 욕구이므로 성욕을 충족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얘기일까? 물론 식욕과는 달리 직접적인 생존 문제와는 관련은 없을 것이다.

수도하는 성직자(신부, 승려)독신자 등 성욕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잘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특별히 종교적 신앙이나 교리에 바탕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확고한 자신의 신념을 갖고 본능적 욕구를 조절하는 특징인을 제외한 평범한 사람들에게 성욕이란 식욕 이상의 강한 욕구로 작용한다고 학자들은 얘기한다. 남녀의 특징적인 신체 변화현상이 나타나는 청소년의 경우 성욕이 자연스럽게 표출되기 시작한다. 특별한 종교적 신앙이나 확고한 삶의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성충동이 얼마나 대단하게 작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성

욕을 충족할 길이 없다. 정상적인 방법이란 합법적인 결혼생활을 통한 남녀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결혼의 연령기가 평균 20대 중반인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면 소년들에게는 성적 욕구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10여년 이상이나 차단되어 있는 것이다. 때문에 청소년들의 자위행위는 성욕을 무리없이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탈출구와 같은 것이다.

보편적으로 여성에 비해서 청소년기 남성은 90% 이상이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자위행위가 옳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판단보다는 문화적 배경과 개인의 가치관에 많이 좌우되는 것일 것이다. 단순히 얘기하면 의학자들은 생리적 측면에서 자위행위 자체가 건강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자위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상담을 통해 만나는 부모들의 경우 자녀의 자위행위에 관하여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분이 많다. 자녀가 사춘기적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면 자위행위에 대해 더욱 민감해져 수시로 자녀 방의 휴지통을 점검하거나 항상 자녀의 방문을 열어놓고 공부하게 하거나, 화장실에서 오랫동안 있지 못하게 감시하는 등 자위행위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지나친 신경을 쓰는 경우를 보게 된다.

중2 아들을 둔 어머니와 자녀의 자위행위에 관하여 상담한 내용의 일부이다.

A : 선생님, 요즘 제 아들이 주위가 산만해진 것 같고 힘도 없어 보입니다. 신체적으로 이제는 남자같이 느낄 만큼 성장했는데 혹시 자위행위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닐까요?

B : 아들이 주위가 산만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원인이 자위행위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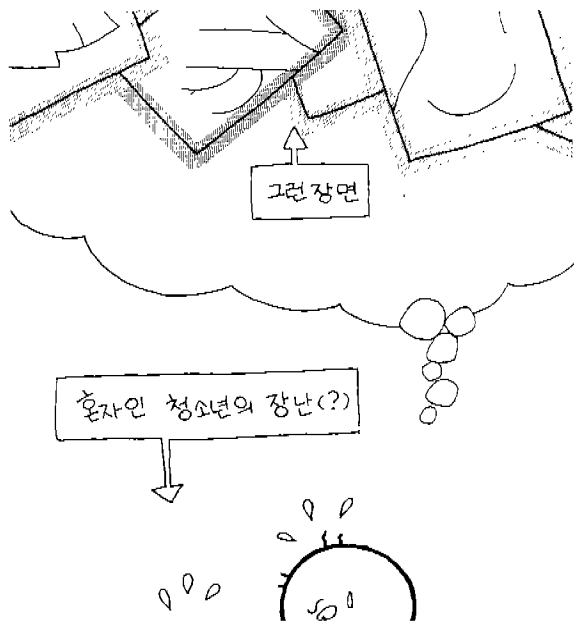
A: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요즘은 전하고는 다른 것 같아서요. 제가 알기로는 자위행위를 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변한다는데 사실인지요?

B: 물론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현대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죠?

A: 어디서라기 보다는 제 친구들과 얘기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도 자위행위를 하면 그럴 수 있다는 판단이 되구요.

B: 지나친 자위행위는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신체적, 정신적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겠죠. 그러나 산만하다거나, 기력없어 보인다는 아들이 왜 자위행위가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전과 달리 방문을 꼭 잠그고 지내고, 휴지통에도 평상시보다 휴지가 많구요. 그런 점들이 그애가 자위행위를 하고 있구나



느끼게 하고... 확실히는 몰라도 안하는 것보다는 체력이 소모되고 공부에 관심이 덜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전 어떤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아이들의 자위행위는 해롭다고 하시면서 부모가 관심을 갖고 자위행위를 안하도록 막는 것이 좋다고 해서요...

40대 초반인 이 어머니는 친구들로부터 또한 교양강좌를 통해 자녀의 자위행위가 해롭다는 얘기를 듣고 그 때부터 중2 아들의 일상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아들이 분명히 자위행위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해로운 이 행위를 금할 수 있을까 골몰하다가 상담을 요청해 온 것이다. 단순히 자위행위가 해롭다고 어떤 강사가 얘기했는지 확실치는 않다. 그러나 자위행위의 유무해론을 떠나 그 행위 자체가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의학자의 견해를 두고 보더라도 무조건 제지하거나 억압하는 방법보다는 자위행위에 관해 바르게 이해하여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이차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사람이 동물의 성과 다른 점은 본능적 욕구에만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인간의 성욕은 매우 강력한 본능적 욕구이지만 자제력 없이 그때 그때의 충동에 따라 행동한다면 동물적 성욕구와 결코 다름이 없기 때문에 자위행위에 관한 기본적인 부모의 교육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일방적인 감시나 강압적인 방법의 사용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해서 자녀들에게 사람이란 자기의 성욕을 지배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과 이같은 자체가 장래 부부의 공동생활에 있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 주어야 한다. 또한 성욕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만 욕구에 따라 행동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나 그 힘을 대치하여 창조적인 일로 활용하면 우리

의 생활도 훨씬 활력이 있고 발전한다는 점을 가르치는 것도 자녀의 성적 죄책감이나 불안감을 덜어주는 교육방법이라 생각한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자녀의 자위행위에 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첫째로 자위행위란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으로 그 자체를 옳다거나 나쁘다는 단순한 관점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자위행위를 모르는 자녀에게 일부러 그것을 가르칠 필요도 없겠지만 이미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자녀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도 불필요한 일일 것이다.

둘째로 자위행위를 하는 자녀들의 경우 심리적 불안감이나 죄책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이다. 아버지가 없을 때는 어머니 혹은 친척 중 자녀와 가장 잘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대신하여 왜 자녀가 자위행위때문에 심리적 불안감이나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일방적으로 ‘괜찮다’ 하는 식의 안심시키는 자세나 “그러니까 자위행위를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하는 식의 태도는 자녀의 불안감이나 죄책감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다 진지하고 솔직한 자세로 잘 들어 준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교육적 의미가 있다.

다음에는 지나치게 자위행위를 하는 자녀의 경우이다. 지나친 자위행위는 과연 어떤 기준에서 정하느냐에 어려운 점이 따른다. 개인차는 있겠으나 지나친 자위행위란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습관적으로 그 행위만을 탐닉하여 생활의 질서가 혼란될 때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선 자녀들의 행동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다. 자주 피곤해한다든지, 활동적이던 아이가 갑자기 외출이나 일체의 활동하는 일을 싫어

한다든지 하는 등이다. 물론 이상의 태도변화가 꼭 자위행위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일단 평상시와 다른 생활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면 관심을 갖고 부모는 관찰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자위행위를 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환경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방의 조명이나 책상의 위치, 침대의 위치 등을 변화시킨다든지 주말에 여행을 가는 방법, 아버지가 등산이나 낚시 등 취미활동을 함께 해주는 방법도 지나친 자위행위의 탐닉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길이다. 대부분 생활의 목표를 상실하거나 심리적으로 과도한 부담이 있을 경우 이완의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는 위에서 제시한 환경변화나 생활자세를 변화시키므로 자연스럽게 도와줄 수 있다. 그러나 그 정도가 병적으로 심각할 경우 정신과 의사를 찾아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청소년기의 자위행위를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부모는 그 행동에 필요한 올바른 지도를 차분이 설명할 수 있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예컨대 반드시 자위행위는 혼자서 은밀히 하는 자신만의 행위가 되어야 하는 점, 자위행위를 하기전에 꼭 손을 깨끗이 씻고 한다는 청결 교육, 행위가 끝난 뒤 분비물의 처리사항 등 아들의 경우 아버지를 통하여 딸은 어머니를 통해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장차 결혼 이후에도 부부의 성생활에 연결되어 습관화될 수 있는 기본적 성교육이라는 점에서 예절교육이며 건강교육으로 볼 수도 있다. 부모는 자녀의 자위행위 자체를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청소년기에 올바른 자위행위에 관련된 신체적 정신적 자세를 배워서 건전한 성적 성숙을 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보다 관심을 갖고 지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청소년들은 성충동을 억제하여야 하는가



요즘 신문의 사회면을 읽다 보면 정말 이렇게 세상이 변하다가는 어디까지 더욱 악한 세상으로 변할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에 의해 발생하는 각종 범죄기사가 하루도 사회면을 장식하지 않을 때가 없으니 세상이 두려워 자녀를 잘 키울지 부모로서 자신감을 잃을 정도이다. 물론 수천 년 전에

도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에는 각종 범죄가 발생했고 퇴폐적이고 음란한 사건들이 항상 뒤따라 다녔다. 그러나 요즘은 해도 너무 한다는 얘기가 저절로 나올 만큼 사회가 너무 혼탁해져 있다. 사회의 질서나 규범이란 것은 이미 상실된 것 같고 인간성 역시 점점 흉폭화되어가니 예전에 못 입고 못 먹어도 그때가 좋았다는 얘기가 나올만도 하다. 등교하던 여학생이 인신매매법에 의해 대로에서 납치되는 사건이라든가 본드를 흡입하고 환각된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집단 성폭행하는 사건 등등 너무도 인륜에 어긋나고 상상도 못할 일들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주위에서 발생하고 있으니 자식을 둔 부모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거리에 나서보면 한 집 건너 싸롱, 디스코홀, 카바레, 여관, 카페 등등 각종 향락업소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 이 같은 사회환경에 자녀를 내보낸다는 것이 마치 줄타기하는 광대놀음 같아 불안하기 그지없다는 부모들의 원성이 높아만 간다. 그렇다고 자녀들을 집에만 묶어둘 수도 없고 퇴폐적이고 혼탁한 유흥환경에 눈을 돌리지 말고 선한 것만 보고 다니라는 얘기도 할 수 없으니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난감하기 이를데 없다.

일전에 음란성 비디오를 접촉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기에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과연 얼마나 포르노비디오에 접촉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했었다. 서울에 있는 15개 중고등학교 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총 응답자 694명 중에서 39.3%가 포르노비디오를 시청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을 해 왔다. 더 놀라운 사실은 비디오를 시청한 장소가 유흥업소나 만화가게뿐 아니라 자기집 아니면 친구의 집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60%가 넘었다는 점이다. 그러고보면 가정 밖의 혼탁한 사회도 문제가

지만 가정이라고 꼭 안전지대가 되지는 못한다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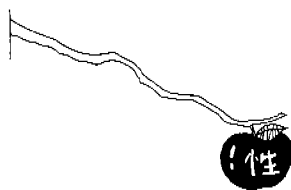
이상의 점들을 감안할 때 우리의 청소년들은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원하는 원치 않은 많은 부정적 자극을 받으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기는 어느 심리학자가 얘기했듯이 폭풍과 노동의 시기이다. 신체적 성장이 하루가 다르며 정신적으로도 역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부모의 눈으로 볼 때는 언제 저렇게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었는지 신기할 만큼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자녀가 성장할수록 자녀가 자란 만큼 걱정도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그들이 점점 부모의 통제권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며 정말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학업이나 건전한 취미 생활보다는 불필요한 일에 관심을 쏟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래도 어렸을 때는 자녀가 잘못된 일을 저지르면 부모가 야단을 치거나 매를 때리면 잘못을 빌고 부모의 말에 순종을 했다.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자녀들은 매사를 따지려 하고 자기의 주장을 굽히려 하지 않으며 나아가 반항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부모는 자녀에게 섭섭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며 경우에 따라 배신감마저 갖게 되는 것이다. 더욱 괴로운 것은 아직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문란한 성행동이 자녀에게서 나타날 때이다.

얼마전 고1 아들을 둔 어떤 어머니가 전화로 상담을 요청해 왔다. 그분의 얘기는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다른 애들에 비해 아직은 어린이 같고 부모의 말에 잘 따랐으며 공부도 성실하게 잘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이웃집 아주머니가 찾아와 대단히 화를 내면서 아들 교육을 잘 시키라고 항의를 하였다. “대

의 아들이 벌써 두 번째 집앞 골목을 지키고 서 있다가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늦은 밤에 귀가하는 고2된 우리 딸을 갑자기 껴안고는 도망 쳤어요. 처음에는 우연히 한 번쯤 그랬겠지 생각하고 덮어 두었는데 또 다시 그런 행동을 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으면 파출소에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학교에 찾아가 선생님께 이틀테니까 주의좀 시켜주세요.” 너무나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라 그 어머니에게 분명히 우리 아들이냐고 몇 번이나 물었지만 틀림없다는 대답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실망감과 배신감이 들었다고 그 어머니는 호소하였다. 아들이 학교에 갔다오면 확인을 해보고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겠는데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무지 좋은 방안이 떠오르지 않아 상담을 한다는 것이었다. 만약 여러분의 아들이 그같은 일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상담한 이 어머니는 여러 번 반복해서 제 아들이 변태성욕자나 정신질환자가 아니냐고 물어왔다. 이 어머니뿐만 아니라 어떤 어머니라 해도 그같은 일을 당했다면 이 어머니처럼 당황하고 실망하며 자기 아들을 비정상적인 아이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일이 물론 평범한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그 학생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특수한 일은 아니다. 또한 그 어머니가 걱정하는 것처럼 정신질환자나 변태성욕자도 아닌 것이다. 다만 자신의 성적 호기심이나 충동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자제심이 부족할 뿐이다. 이 학생의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을 아작은 어리고 착하게만 보아왔지, 이성에 대한 호기심과 성적 충동이 있는 한 남성으로 성장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더욱 놀란 것이다.

그렇다. 사춘기란 사람이 태어나면 그 성장과정에서 누구나 한 번은 겪어야 하는 시기이고 이 때가 되면 성적 호기심이나 충동

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다만 어떤 사람은 그 시기에 나타나는 자신의 욕구를 외부에 표출하지 않고 잘 억제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의 성충동 자체를 무시하거나 억압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자녀 스스로가 자신의 성충동과 자제심을 조화시킬 수 있는 인격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느냐 하는 점에 관심을 갖고 교육하는 것이 슬기로운 자세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부모가 생각할 점은 첫째로 자녀가 성욕구를 가능한 스스로 최소의 긴장상태로 억제해 둘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즉 자녀가 어릴때부터 인내와 절제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을 흔히 인스턴트 시대라고 얘기한다.



이는 필요할 때 즉시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너무나 편안한 세상이라는 의미이다. 배가 고플 때 끓는 물만 있으면 몇 분안에 즉시 식사할 수 있는 컵라면이라든지, 어느 곳에라도 휴대가 간편한 불펜, 샤프펜슬 등 세상에 무엇 하나 불편한 것 없이 즉시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편리한 세상이 됐다. 예전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어머니가 음식을 장만할 때까지 30분이고 한 시간이고 기다리던 인내심을 요즘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자제심을 키운다는 것, 이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갖추어야 하는 발달 과제중의 하나이다. 때문에 부모로서는 자녀가 어릴때부터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등을 구분해서 가르치는 엄격함이 필요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왜 이일은 해야 되고, 저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자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식사 전에 손을 꼭 씻는다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자녀에게 가르칠 때 무조건 식사 전에는 손을 씻어야 한다는 일방적인 훈계보다는 더러운 손으로 그대로 식사하면 평균에 감염될 수도 있고 함께 식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외에 어긋나는 것이니 식사 전에는 손을 씻는 것이 바른 것이라고 가르치는 자상함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지나치게 과잉보호하는 경향이 많으며 한편으로는 일방적인 과잉통제도 심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때문에 눈치가 발달하고 부모가 잠시 감시를 게을리하면 버릇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녀가 많다는 것이다. 자제심을 키운다는 것은 일정한 규칙에 따르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공동생활의 의식을 함양시킨다는 의미도 있다. 지나친 비약인 것 같지만 자녀가 공부만 잘하면 무조건 착하다고 칭찬하는 부모의 태도는 자녀의 인격적인 성장을 그르친다는 것을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로 청소년기의 자녀가 성충동을 잘 조절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활기찬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정신분석학자들은 인간의 성욕을 그 욕구에 따라 부족함없이 충족한다면 사람은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힘이 약화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성욕의 원천으로 집중되는 힘이 성생활에 소비되는 경우가 적을수록 힘의 대부분이 신체 전체의 골격, 근육, 두뇌 및 이들과 관계있는 고등신경 활동의 발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쉬운 얘기로 절제와 인내, 각고의 노력없이 창조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청소년기의 자녀들은 환경에서 오는 자극도 강하고 내적인 욕구 역시 강하게 분출될 때이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성충동을 잘 조절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때문에 이 성적 욕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억제시키려 하기보다는 사회와의 접촉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즉 오락, 각종 스포츠, 문화활동(그림 그리기, 성악, 기악연주, 서예 등) 건전한 취미 등을 통하여 육체적으로 긴장이 풀리도록 하여야 한다. 운동이 부족하면 성적인 유혹에 보다 강한 상상적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외로운 상태에서 흥미가 어떤 구체적인 곳에 쏠려 있지 않으면 자녀는 성적인 행위로 돌파구를 찾는 경우가 생겨날 수도 있다. “우리 자녀는 너무 착하고 친구와 잘 만나지 않고 외출을 하지 않으며 집에서만 있는 조용한 성격이다. 그러므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꼭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는 점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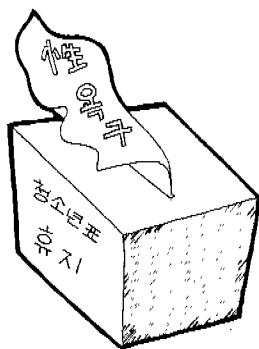
셋째로 자녀가 성충동을 행동화하는 것은 많은 경우 부모에 대한 적개심에서 반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습관적으로 가출하거나 문란한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상담을 하면 많은 경우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거나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당연하다는 식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하면서 부모에 대한 원망심이 가득찬 것을 보게 된다. 물론 자녀가 어떤 것이든 부모에게 불만이 없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 불만이 일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아기때부터 누적되어 이제는 적개심으로 변할 정도가 되는 것이다. 예컨대 자녀를 지나치게 편애하여 부모로부터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는 자녀나, 부모의 정서적 불안으로 일관성없는 태도를 자녀에게 수시로 보이는 부모, 잦은 부부싸움으로 가정의 분위기가 평온치 못한 상태에서 성장한 자녀들 등 부모와 자녀간에 원만한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가정이 불화할 때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 간접적으로 복수하는 행동, 방종에 가까운 성행동으로 불만을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사춘기 자녀들의 문란한 성행동은 본능적 충동에 의해 나타나는 일시적인 것도 있지만 심리적 적개심에 의해 자학적으로 나타나는 성행동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다. 무엇이든 미리 대비하면 어려움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이다. 자녀들은 앞서 말하였듯이 극도로 유해한 사회환경에 거의 노출되어 성장하고 있다. 심리적으로 자극이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반응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퇴폐화되었다 하더라도 역시 건강한 사람은 건전하게 자신을 잘 자제하면서 생활할 수 있다. 사춘기는 성적 성숙기이다. 사춘기가 되면 누구나 이성애 관심을 갖게 되고 성적 충동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무분별하게 행동하느냐, 안느냐에 따라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치 못하냐가 구분될 뿐이다. 때문에 인격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적으로는 원만하고 건강한 사람이란 의미

가 있다. 몇년 전부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이 지구촌의 큰 관심사가 되었다. 현대의 페스트, 혹은 인류의 성적 방종을 경고하는 신의 저주라고 얘기할 정도로 불치의 성병이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이 많은 사람들에게 만연되는 것을 보면서 서구에서도 문란한 성행동이 많이 순화되었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비단 극단적인 후천성면역결핍증이란 성병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임신에 따른 문제점, 그 외 책임감 없는 방종한 성행동이 앞으로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들을 진지하게 교육하고 대화하여 자녀 스스로 자신의 성충동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부모의 자신감 있는 성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청소년들의 성의 향방은 어디로



청소년기의 “성”을 얘기하는데 있어서 남녀를 함께 묶는 일은 때로 오해를 야기시키기 쉽다. “성”이라 하여도 반드시 육체적인 “성”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닌데 많은 부분이 육체적인 설명이 되어야 하므로 이 시기의 남녀의 성은 구분하여 설명을 하는 것이 편하다. 예를 들면 “성폭행”이라 하였을 때 폭행의 가해자는 언제

나 남자가 되고 있고 피해자는 여자인 것이다. 따라서 성폭행을 얘기할 경우에는 으레히 남자의 경우이거나 하고 지나칠 수가 있다. 전반적인 성에 관해 설명을 하고자 할 때에도 남자의 성만을 설명하여서는 곤란한데도 사람들은 별 뜻없이 한 마디로 언급을 해버리고 만다. 그러한 경우 “성”은 남자의 성이라 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만 혼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이면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하며, 그것은 여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남녀의 성을 묶어서 얘기하는 일도 잘못이거나와 여자의 성은 제외시키는 일도 옳은 것은 아니다. 더구나 아직도 봉건주의의 잔재가 남아있어 남자우위의 태도가 역력한데다 특히 성문제에 있어서는 여자는 피동적인 것으로만 알려져 있어서 성은 쉽게 남자의 전유물로 치부되고 있는 마당이므로 이 부분은 마땅히 남녀의 성이 구분되어 충실히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성의 이중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다. 남자에게는 대단히 느그럽고 여자에게는 야박한 기준으로 즉 여자는 결혼 전에는 처녀라야 하고 결혼한 후에는 한 남편만을 알아야 하며 혼자 되어도 일부중사를 해야 하므로 재혼을 하지 않는다는데 반해 남자는 중가시절이라도 성행위를 해도 무방할 뿐 아니라 결혼한 후에도 아내 아닌 다른 여자와 행위를 할 수도 있으며 혼자 되었을 때 재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등 봉건시대 남존여비 사상의 잔재와 같은 얘기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사회의 인식이 이런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으나 ‘double standard’라는 용어가 말해주듯 서구사회에도 이러한 경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는 국제적으로 사람들의 의식이 크게 바뀌어져서 이런 기준에서 벗어나고 있는 경향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남녀의 생식생리현상의 자연현상일 수도 있어서

어느 여건하에서는 반드시 잘못이라고 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치에 맞는 얘기이기도 하다. 즉 남존여비 때문에 어느 쪽은 마음대로 행하고 어느 쪽은 참아내는 상태가 아니고 자연현상 자체에 차이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쉽게 능동적이지니 피동적이지니 운운하며 여자는 피동적이고 남자는 능동적이라고 표현을 한다. 성에 있어서의 상태가 평생 한 쪽은 능동, 한 쪽은 피동일 수는 없으나 어느 시기까지도 즉 미혼인 남녀 사이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도 무방하도록 성생식생리의 발달과정에서 남녀에게 차이가 있게 되어있다. 성욕구나 쾌감을 느끼는 과정의 발달이 시기적으로 다르게 되어있는데 남자의 경우는 사춘기를 지내면 소위 말하는 능동적인 욕구가 생기는데 반해 여자는 신체적인 변화가 생기고 월경도 있으며 월경에 앞서 사람이 직접 보고 있지는 않으나 난자가 배란되는 현상도 생겨 성행위가 있을 경우 임신할 수는 있지만 남자와 달리 직접 성욕구를 느끼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여자의 성욕구나 쾌감은 월경 뒤, 성행위를 거듭하며 세월을 쌓았을 때 비로소 느끼게 되므로 미혼인 상태에서는 능동적인 욕구를 갖지 않는다. 단 사춘기를 지내면서 분비가 증가되는 여성호르몬의 역할로 인해 이성에 대한 관심, 그리움 등 마음으로 느끼는 부분은 남자와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이 때의 이성에 대한 관심 또는 대상의 선택 등에서 사춘기는 겨우 그런 상태의 시작에 불과하므로 그 후 크게 변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때는 워낙 감정이 격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의 여자아이는 쉽게 자신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고 단정을 지어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여하튼 남녀의 생식생리의 발달과정이 달라서 이 시기까지는 이중의 기준은 아직도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된다. 따

라서 남자들에게는 성의 욕구가 있는데 반해 여자들은 육체적인 성욕구는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남녀동등이 거의 이루어져 있는 편인 서구 국가들에서는 이중의 기준을 이미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남녀는 어느 시기도 동등하다고 하고 있으나 생식생리는 사람의 몸에서 생기는 자연현상이므로 서구라 하여 다르게 발달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해석을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 것이 다를 뿐이다.

결국 여자는 월경이 있으며 따라서 임신할 수도 있는데 반해 아직 직접 느끼는 육체적인 욕구가 없고 남자는 성이라기보다 배설작용의 하나로 정액을 배설하고자 하기 때문에 욕구를 느끼게 되어 이 배설로 쾌감을 느끼게 된다는 차이를 갖게 될 뿐이다. 이 때문에 남자는 능동적이라 하고 성욕구니 폭행이니 하면 거의 남자쪽의 현상인 것 같이 얘기되고 있는 것이다. 생리현상이 다른 것이므로 여기서 남녀평등을 찾을 필요는 없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여 남자들이 그들의 이런 욕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이다.

최근 성폭행이 현저하게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며 인신매매 역시 끊이지 않고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원인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 여자의 경우에도 인체가 갖는 배설욕구인 대소변을 반드시 봐야 한다. 먹을 것은 먹고 배설할 것은 배설하는 것이 정상적인 현상으로 만일 대소변을 며칠씩 보지 못한다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이런 상태에 남자에게는 배설해야 하는 또 하나의 현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성행위를 해서 정액을 밖으로 내놓아야 하는 현상인 것이다. 그러나 대소변은 못보면 사망할 수도 있으나 정액을 못내었다 하여 사람이 죽지는 않는다. 다만 자신이 알아서 배설을 못할 때에는 자연적으로 배설이 되는

몽정이나 유정현상이 있는데 어린아이가 밤에 오줌을 싸는 일과 같은 이치로 배설이 된다. 이 정액의 배설과정에서 느끼는 쾌감이 바로 성의 욕구 또는 성쾌감 등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이 남자들의 배설은 생리적인 자연현상이므로 당연히 내보아야 하지만 적당한 대상이 없거나 연령이 아직 어릴 때에는 몽정이나 유정으로 내보내는 경우와 스스로 작용을 하여 내보내는 자위행위 등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다.

26세의 한 청년이 10년간 자위행위만을 해왔다. 외아들인 이 청년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결혼할 것을 당부하며 매일같이 재촉하였으나 청년은 계속 미루기만 하였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첫날밤을 치를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자위행위만 해오



고 한 번도 직접적인 성행위를 해본 경험이 없었기에 결혼한다는 일에도 자신이 안생겼다는 것이다. 친구와 상의한 끝에 그럴만한 여자를 찾아갔는데 수치심에 술한잔을 하고 갔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세상에 나와 첫번째로 직접적인 성행위를 시도했다가 보기 좋게 실패를 한 것이다. 청년은 즉각 자신은 성 불구자라고 단정을 내렸고 말도 못한채 계속 어머니의 결혼 권유를 거부했다고 한다.

자위행위를 계속해 올 수 있었던 남자가 성적으로 불구일 수는 없다. 26세면 이미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있을 수도 있다. 아마도 이 청년이 16세에 이런 곳을 방문했고 실패를 하였다면 즉각 불구라고 단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잘 안되는거구나”하며 또 다음 기회를 기다렸으리라. 사람의 육체는 단련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운동선수들이나 씨－커스를 하는 사람의 몸은 단련에 의해 많이 변화된다. 같은 이치를 성관계에 적용한다면 18세 때부터 성관계에 연습이 되었던 남자와 26세까지 자위행위만으로 이어왔던 남자 중 어느 편이 성을 더 즐길 줄 아는 사람이며 자신만 즐기는 것이 아니고 상대인 여자와도 함께 나눌 수 있을런지, 이에 대한 답은 누구도 정확히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여자 관계가 많고 술을 잘 마시는 남자를 호탕하다 하면서 오히려 남자다운 남자상인 것으로 여기기까지 하였다. 현재 남성상이 크게 바뀌기는 하였으나 성이 최악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즐거운의 하나라 간주한다면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범위에서 성은 즐겨 마땅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26세까지 자위행위로만 지켜나오고 새삼스럽게 여자를 대하자니 불구 같더라는 경우가 과연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 미군부대 주변에는 기지촌이 형성되어 한국여자들이 진을 치고 미군들의 성의 상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권을 신장한다고 하여 윤락여성을 단속하는데 주력해 왔으나 그렇다고 항간에 이러한 윤락여성들이 없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더구나 이들은 살기가 어려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우선 게으르고 노동하기 싫어하는 나태함 때문에 스스로 그런 직업을 선택하고 있는 여성들인 것이다. 공장도 사람이 부족하여 구인에 쪼쪼매는 상태이고 가정 부나 파출부도 인력이 부족한 오늘날이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노동력의 부족을 심각하게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도 쉽게 몸을 파는 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인신매매를 당하는 경우에도 자신에게 전혀 틈이 없이 끌려가지는 않는다. 그럴만한 여건에 놓여 있을 때 유괴를 당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이러한 여성들은 유감스럽게도 청소년용이 아니다. 적어도 수중에 기만원이라는 돈이 있지 않으면 접할 수 없는 만큼 비싼 여성들이어서 문제가 된다. 즉 이들은 성인용의 여성으로 되어 있어서 돈이 없는 청소년들은 감히 접근할 꿈도 못꾼다.

우리 사회에 이러한 윤락여성이 전혀 없는데 새롭게 만들자는 뜻은 물론 아니다. 엄연히 있기는 있으나 이미 유부남이 되어있을 어른들만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값이 비싼 상태이므로 이 부분의 시정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청소년들 그중에서도 남자들이 생리적으로 배설해야 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나아가 당당하게 이런 현상에 대처해 나가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과거와 같이 일찍 결혼을 시키는 것으로(운동선수들은 조

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신 경제력이 없는 동안에는 출산은 연기하도록 피임을 시키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둘째로는 음성적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윤락여성을 양성화하여 비싸지 않게 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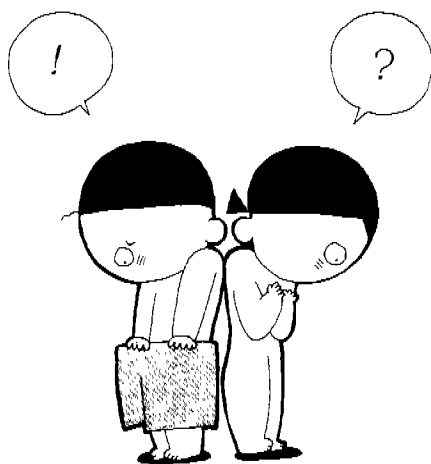
첫번째인 조혼의 경우에는 20세 쯤에서 결혼을 할 수 있다면 사춘기부터 그 정도의 연령까지는 자위행위만으로도 무방할 것이므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30세가 넘는 총각들이 있고 그들이 욕구를 주체못하며 어떤 상황에서 즉각 자신을 불구로 단정하기에 이룬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남은 생애의 생활에 있어서도 성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혹은 동성애로 빠져들지 않을까 염려되지 않을 수 없다.

윤락여성을 양성화할 경우는 현재의 기지촌과 같이 정식으로 인정하는 시설을 두게 되면 우선 성병 등의 보건관리도 철저하게 할 것이므로 안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많은 남성들이 첫번째 관계를 이들과 하게 된다 할지라도 워낙 직업적인 여성들이므로 경험에 입각하여 일일이 손을 잡아 가르치는 식의 유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며 그런 경우 남성들은 불필요한 열등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행위로써 굳이 혼전에 어떤 여성과의 관계가 있었는지 아니냐 등으로 부부간의 문제가 생길 필요도 없어질 것이다.

자연현상의 하나로 되어 있는 성행위를 억압적으로 막는 일은 부당할 수밖에 없다. 어떤 경우건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무리하게 왜곡시켜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이므로 어떤 방법으로도 이 자연현상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어야 마땅하다. 성은 생리적인 자연현상이므로 이 부분에서 남녀가 동등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런 해결안에 남자에게 특권을 주는 일이라 해석할 필요는 없다.

남녀의 동등은 생리현상을 같게하는 일까지 하지는 못한다. 서로 다른 현상을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다른 역할을 해가면서 그 안에서 충분히 동등을 찾고 누릴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일반여성이나 가정 등은 오히려 안전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이성교제 과연 문제인가



청소년이면 누구나 한번쯤 생각하고 또한 직접 해봤으면 하는 설레이는 바람으로 꿈꾸는 것이 바로 이성교제이다. 이는 청소년들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이면 으레 등장하는 주제이기도 한데 이제는 이성교제가 바람직한가, 아닌가를 얘기하기조차 진부할 정도로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이성교제를 완성하고 있다.

이미 알고 있는대로 청소년기는 제2차 성장이 발현되는 인생의 전환기이다. 청소년기 이전의 아동기를 일컬어 프로이트(Freud)는 성적인 잠재기라고 하였다. 이때는 남녀 성의 특징적인 신체적 변화가 있기 이전의 상태로 대개가 동성끼리 어울리며 이성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을 뿐더러 때에 따라 이성 동년배간에 적대감마저 갖는 시기이다. 그러나 청소년기로 접어들면 남녀의 성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즉 신체 구조적인 변화가 오게 되는데, 이때부터 심리적으로 이성에 대한 호기심, 수줍음 등의 관심을 보이게 되며 이성에게 자신을 잘 보이려는 노력들을 하게 된다. 그래서 사춘기란 ‘이성에 관심을 갖고 그리움을 느끼는 시기’라고 사전에 쓰여져 있을 정도이다.

또한 청소년기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구와 자신의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성인으로서 책임있는 인생을 살기 위한 바른 인생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은 자신의 경험의 세계를 넓히고 싶어하는데 이는 지금까지의 가족과 동성 친구들의 울타리를 벗어나 새로운 이성과의 교제를 통해 또 다른 인간 관계를 체험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기의 이성교제에 대한 바람은 자연스러운 요구이므로 이성교제는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부모들도 청소년 시절에 이성에 대한 관심과 사귀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았던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그 이성의 대상이 동년배 이성이든 혹은 연상의 선생님이나, 연예인이나, 소설 속의 주인공이든, 마음속에 동경하는 이성상을 그리며, 설레임에 안타까워했던 순간들이 있었으리라.

그러나 청소년들의 이성교제에 대한 바람과는 상이하게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대부분 청소년 때에는 그것을 금기사항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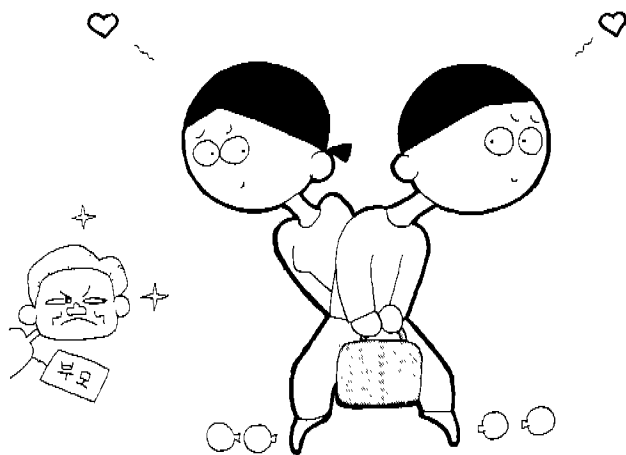
로 막아버리든지 아니면 이성교제에 대한 욕구를 이해는 하면서도 실제로 내 자녀만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유보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 쉽다. 이 점에서 자녀와 부모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서로간에 대화의 장구가 막혀버리는 경우를 자주 대하게 된다. 다음에서 어느 어머니와 상담한 내용을 중심으로 부모는 왜 자녀의 이성교제를 금기사항으로 여기고 있으며 또한 자연스러운 청소년들의 이성교제에 대한 바람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처음 그 어머니가 상담하고자 했던 문제는 고등학교 2학년생인 아들의 반항심과 학교성적의 하락 문제였다. 상당히 침울한 표정으로 어머니는 아들이 갑자기 변해도 너무 변했다며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전만 해도 착하고 공부에만 전념했으며 부모의 말에 순종하던 아들이 2학기부터 점차 엄마의 말에 반항하고 외모에 관심이 많아졌으며 공부를 등한히 한다는 것이다. 너무나 답답해서 아들이 학교에 간 사이 공부방을 청소하다가 일기장을 보게 됐는데 일기장 사이에 어느 여학생에게 보내는 편지가 여러 장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어머니는 편지의 주인공인 이 여학생 생각으로 인해서 아들이 공부를 등한히 하고 괜한 짜증을 낸 것으로 짐작하고 저녁에 아들이 왔을 때 그 편지들을 내보이며 추궁을 하였다. 그랬더니 도리어 아들이 화를 내면서 “엄마는 무식하게 남의 일기장을 왜 보느냐”, “집을 나가겠다”, “학교를 그만 다니겠다”는 등 분노를 터뜨린 후 전혀 말이 없어졌으며 학교는 나가는데 집에 오면 자기방에만 있고 식사도 잘하지 않았다. 남편과 의논한 후 일기장을 본 것에 대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모든 것이 너를 위해 그런 것이다 라고 아무리 설득해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두려운 마음에 상담실을 찾

왔다는 것이었다.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들의 입장에서 그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시위였으리라고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당황하고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우선 안정시켜 드린 후 다음에 아들을 만나서 상담하자고 설득하였다. 며칠 후 아들과 상담실에서 만났다. 그는 처음부터 어머니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매사를 판단하여 자기를 무시한다고 흥분하였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 그 학생은 물론 자신이 어느 여학생을 마음속에 그리면서부터 공부에 조금은 등한히 했고 짜증스러울 때도 많았다고 고백하였다. 그러나 나름대로 마음을 정리하고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공부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어른이 자신의 소중한 비밀이 기록된 일기장을 훑쳐보고 야단을 칠 수 있는냐는 것이었다. 그 얘기를 들으니 그가 분노했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었다. 평소에 어머니와 대화가 원활했는데 왜 그 여학생에 대해서는 어머니와 대화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성교제에 관한 한 평소에 엄마는 그건 대학교에 진학한 후에야 할 일이고 고등학교 때는 공부에만 전념해야 된다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하였기 때문에 차마 얘기할 수 없었어요.” 학생과의 면담이 끝난 후 어머니에게 아들이 왜 분노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설명해주고 나서 무엇이든 어머니의 일방적인 기준들에 맞춰 자녀에게 요구하고 지도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자녀의 입장에서 서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하였다. 그 후 몇 번 면담이 진행됨에 따라 어머니와 아들의 심리적 갈등들이 상당히 정리된 후에 상담이 마무리 되었다.

이상의 상담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청소년 자녀들의 이성교제에 대해 부모님들이 생각해 볼 점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가 중·고교생일 때에는 이성교제를 가능한 한 금지하려는 생각을 갖는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진학제도가 시험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 5명의 수험생 중 겨우 1명만이 진학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여건에서 학업 이외의 문제들에 관심 갖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학생이 이성교제를 한다면 물론 정상적으로 학업에 몰두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성교제를 고교졸업 이후로 미루었으면 하고 바랄 것이다.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한다면 부모로서는 당연히 가능한 바랍시고 또한 그럴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부모의 일방적인 통제나 감시로 이성교제를 차단시키느냐 아니면



부모와 자녀간에 진지한 대화의 과정을 통해 자녀와 부모가 동시에 수긍하는 원만한 타결점을 찾느냐 하는 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일방적으로 이성교제는 불허한다고 아주 금기사항으로 못 박는다면 자녀가 우연이든, 의도적이든 이성과의 교제 혹은 관심이 생겨났을 때는 이미 부모는 자녀의 의논 상대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사실 많은 청소년들이 이성과 관계된 고민이나 갈등이 있을 때 부모와 이 문제로 대화하고 도움을 받는다는 경우는 별로 없다. 물론 자녀들이 청소년시기에 이성교제로 말미암아 심각한 혼란상태로 빠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성에 대한 관심이나 이 관심이 이성과의 교제로 발전되는 것을 일방적인 감시나 억압만으로 막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평소에 부모들이 이성교제에 대해 보다 수용적이고 이해하는 폭넓은 자세를 자녀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자녀들은 이성교제에 관련된 자신의 생각이나 혹은 갈등들을 자유스럽게 부모와 의논할 수 있으며 이렇게 편안한 관계형성이 자녀의 이성교제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온갖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길이 될 것이다.

물론, 청소년 자녀들을 성장한 만큼 인정해 주는 부모의 신뢰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청소년기에는 대체적으로 경우에 따라 일순간 혼란에 빠지는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이성교제로 인하여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위태롭게 느낄 수 있을 만큼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으나 많은 청소년들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점을 자각하고 정리하고자 노력한다. 때에 따라 부모는 자녀의 혼란된 모습을 관찰하게 되면 부모 자신의 불안감 때문에 자녀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거나 혹은 스스로 정리할 때까지 견디어내지 못하고 강력하게 개입하는 경우가 많

다.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성급한 개입은 부모의 노파심에는 안도감을 줄 수 있을지 모르나 자녀가 자신의 삶에 책임감을 갖고 자율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통찰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능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비단 이성교제뿐 아니라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부모가 여유있는 마음자세로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지켜보며 견디어 준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점이다. 언제까지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대신할 수는 없다. 언젠가는 자녀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에 직면하여 자신을 성찰하고 무엇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책인가를 찾아야만이 자녀의 홀로서기가 가능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부모가 자녀를 인정하고 믿음을 주는 넉넉한 자세는 자녀에게 스스로의 책임감을 강화시키고 어떤 돌발적 사건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슬기롭게 해결하는 힘을 길러줄 것이다.

셋째, 부모가 갖고 있는 이성교제에 대한 보수적이고 굳어 있으며 편협한 사고를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의 성문화는 대단히 배타적이었고 성 자체를 금기시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유교적 윤리와 도덕관이 우리사회를 지배할 때의 관습으로, 다양한 가치가 서로 공존하며 지구상의 각종 정보를 시간차이 없이 접하게 되는 현대사회에서는 결코 바람직한 부모의 태도는 아닐 것이다. 부모들이 청소년 때에 자주 들어왔던 “남자는 늑대, 여자는 여우”라는 이성에 대한 표현은 지금의 청소년들에게는 설득력 없는 가르침이다. 남자와 여자의 인격적 차등이 결코 용납되지도 않는 사회이며 만약 그와같은 이성관을 가진 자녀가 있다면 앞으로 원만한 사회생활과 결혼생활에 지장을 갖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아직 많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이같은 부정적인 이성관을 심어주며 이성에 대한 적대감을 유발시켜 청소년의 이성교제를 막으려는 낡은 방법을 쓰고 있다. 하나를

지키려다 열을 잃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예가 바로 이 점이 아닐까?

궁극적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란 건전한 인간관을 바탕으로 책임있게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람은 남녀양성으로 이루어져있고 성장하면 언젠가는 결혼을 하여 가정을 갖게 된다. 아무리 학식이 높고 경제적 부귀를 누렸다 하더라도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부부간에 애정이 없다면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때문에 건강한 이성관을 형성한다는 것은 한 개인의 성숙한 인격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의 행복한 삶을 가름한다는 점에서 부모의 편협한 이성관을 스스로 재정리하여 자녀에게 올바른 이성교제에 대한 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자녀의 이성교제가 음성화되거나 성인들의 난잡한 이성교제를 모방하는 불건전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부모의 지원이 필요하다. 밝은 대낮에 강도가 횡행할 수 없듯이 부모가 자녀의 이성교제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자세를 보인다면 얼마든지 건전한 이성교제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이성친구가 생기면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음을 써준다는지 또는 종교활동이나 집단 캠프활동을 통해 이성과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하는 것은 막연한 호기심과 이성에 대한 그리움을 체험을 통해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청소년의 이성교제의 문제점은 이성교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이차적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가 사춘기 자녀들에게 건전한 이성교제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이성친구를 스스럼없이 초대하여 편안히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적극적인 방법은 이차적으로 나

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문제점들을 미연에 예방하는 좋은 방법일 것이다.

자녀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성장하고 성장한 만큼 그들의 관심과 요구도 다양해진다. 이성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성과의 교제, 이는 그만큼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관심이고 요구이다. 염려와 불안으로 자녀를 감시하기보다는 자녀가 성장한 만큼 인정하고 신뢰하는 담대한 부모의 태도를 통해 자녀는 부모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것이다.

순결을 잃었어요



현대를 사는 10대(또는 20대라도 같다)여자아이가 “순결을 잃었다”고 고민하며 호소한다면 어쩌면 그 순진함을 다행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순결”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데 잃을 것이 무엇이겠느냐고 반발을 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때 만일 그 행위로 인해 임신이 되었다든가 또는 병을

얻었다든지, 대하가 많아진 듯 하다면 이러한 직접적인 신체의 변화에 대해서는 허둥대고 당황하게 되는 수는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10여년전 여자아이들은 성행위를 하고는 으레 “나는 어처구니없이 당했다”고 표현했었다. 행위는 강제로 한 경우가 아니고 자신이 동의하여 함께 행동을 하였어도 한결같이 “당했다”고 표현하였던 것이다. 이런 경우 만일 법적으로 이 행동을 따진다면 “당했다”는 말은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 행위는 자신과 동의하에 이루어졌고 어느 장소에 갈 때까지 강제로 납치되었던 상태가 아니었기에 법적으로 강간, 성폭행 등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자 아이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당한 것이고 자신에게는 그럴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 법에 호소할 일이 못된다는 것은 알고 있으므로 말도 못하나 여하튼 아무리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기만 한 것이다. 그러나 이 때에 상대인 남자는 성행위를 한 것이지 그 이상의 것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 상태에서 남녀의 주장은 다 옳은 것이다. 남자 아이는 여자 아이도 알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생각했고 여자 아이는 남자에게 그런 행위를 원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호기심과 무-드와 또는 어떤 강요(간곡한 욕구라 해야할 것이다)에 못이겨 끌려갔다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행위를 하고 만 것이다. 결국 동상이몽인데 행위를 하고나서 남자야 원했던 행위를 한 번 한 것임에 반하여 여자아이는 뭔가 어렴풋이 듣고 있던 큰 일 날 행위를 한 것이라 깨닫게 되고 그 일은 자신의 의사와는 다른 것이었기에 “어처구니없이 당한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러던 것이 10여년간에 양상이 바뀌어 요즘에는 “당했다”고 표현하지 않고 “성행위를 했다”고 덤덤하게 말을 하고 있다. 행동

이나 동기는 다 같은데 평가가 달라진 느낌이다. 행위를 어느 날 했는데 임신이겠는가 여부를 묻고 있을 뿐 순결 운운을 염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아니면 외부로 표현되기는 어려해도 몹시 갈등을 느끼고 있는건지도 모르겠으나 여하튼 아이들의 두려움은 물적 증거로 남을 것에 대한 심려를 하고 있는 것이라 보여진다.

반면 남자의 경우에도 그토록 끈질기게 찾던 처녀성 또는 처녀막을 찾지 않고 있다. 여자는 처녀라야 하고 처녀라면 그 증거로 처녀막이 있어야 하며 그래서 첫날 저녁에는 출혈이 있어야 한다는 등의 생각은 이미 옛애기가 되어버렸고 지금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찾는다면 지극히 촌스럽다는 태도인 것 같다. 그 때문인지, 속으로는 몰라도 겉으로는 처녀막이니 처녀성이니를 추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이런 흐름의 현상속에서 누군가가 순결 운운을 호소했다면 그것은 오히려 무척 기특한 얘기라는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오늘 날 우리의 사회는 진실보다는 허구가, 내용보다는 형식이 한층 큰 소리를 내고 있다. 순진무구한 사람은 바보취급을 받는 것이 심상이다. 누가 어떤 식으로 너는 순결해야 한다고 가르칠 수가 있었는지, 왜 순결해야 한다고 했는지 혹 누군가가 가르치려 했다 하더라도 “순결해야 한다”, “잘못하면 여자는 임신이 될 수 있으니까” 또는 “처녀막이 파괴되면 너는 결혼하기 어려워지니까”라고 하였을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어떤 행동을 하여도 뒤에 상대가 알 수 없도록만 하면 되고 임신만 안되면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한 때 유행하던 처녀막 재생수술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말하고 있다. 제생이면 역시 새 것은 아닐텐데 그런 속임수라도 써서 상대방에게 발견만 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에서 행해졌던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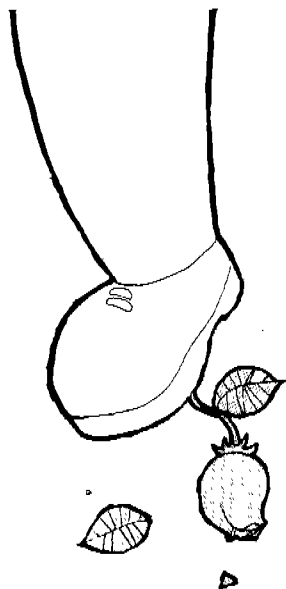
다시 말하여 우리는 서로 마음을 찾지 않고 형식을 찾으며 생활해 가고 있는 실정인데 그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순결”을 어떤 뜻에서 받아들이며 무엇이라고 알고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어른들이 스스로 진지하게 세상을 살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비로소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너희는 장차 원만한 부부생활을, 좋은 가정을 지녀나가기 위해 서로의 믿음을 간직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경우를 위해 서로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어른들 중에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있을 것인가? 따라서 아이들이 “순결”의 진의를 알고 있는지 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순결은 남녀에게 다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여자에게만 해당이 되는지 아마도 순결을 잃었다고 할 수 있는 쪽은 여자쪽일 것이 분명하고 그럴 경우 순결은 여자에게만 요구되어야 하는 것인지...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어떤 여성은 14세에 자기의사와는 관계없이 친척오빠에게 당하고는 순결하지 못하다며 그후 10년을 결혼은 단념하며 살아왔노라 하였는데 24세밖에 안된 여성의 모습이 35~36세는 되어 보이도록 늙었다는 인상을 주고 있었다. 웃음을 잃고 결혼은 아예 단념한 채 행여 성병에 걸리지 않았나 10년이 넘도록 전전긍긍 살아가고 있다. 이 여성을 보고 사람들은 과연 잘했다고 할 것인지 사회는 이 여성의 희생과 불행을 어떠한 눈으로 볼 것인지 나아가 우리는 계속 이런 식의 순결을 강요해 갈 것인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순결은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원리는 두말할 나위없이 옳다. 그러나 융통성은 있어야 한다. 남자는 생리적으로 성장과정 이 달라 사춘기를 넘으면서 자연현상으로 배설을 해야 하도록 되

어있다. 그러므로 순결이라는 차원과 달리 이런 배설이 필수적이며 때론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에는 창녀를 찾게 될 수도 있다. 남자에게 후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으로서 역행할 수 없는 자연적인 생리현상의 하나로 그런 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과는 달리 여자의 경우에는 그런 필요성도 그럴 의사도 없었으면서 소위 어처구니 없게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현대의 사춘기 소녀들이 당했다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연령에 행위가 있었을 경우(그것이 첫 경험일 경우)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당한 것이다. 스스로 원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생리현상이 다르게 발달되므로 이 시기에 스스로가 욕구를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현재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경우 그 책임이 여자아이 하나에게 있을 수는 없다. 책임은 부모나 교사를 위시한 기성인 전부에게 있는 것이라 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놓지 않은 채 아이를 나무위에 올려놓고 흔들어대듯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 바로 그 기성세대였으므로 책임은 공동으로 져야 마땅하다. 순결을 지켜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래야 하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어처구니 없이 모르고 잘못 알아 당한 경우가 지 아이들만을 나무란다는 것은 지나치다. 공동의 책임이 되어야 하므로 이런 경우의 경험은 순결과 무관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을 그들만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적 인식 탓에 아이들은 한 번의 잘못을 두 번, 세 번, 열 번으로 이어가고 이욕고 엄청난 나쁜 아이로 낙인이 찍히게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몰라서 저지른 일에 대한 지나친 추궁은 곤란하다. 궁지로 몰지 않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도 있다. 신체의 결백보다는 마음의 결백을 받아드리도록 어른들이 주변을 다스려 놓아야 한다.

인신매매의 얘기가 심심치 않게 신문에 보도된다. 윤락여성이란 용어도 곧잘 쓰인다. 순결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사람이 이들 윤락여성들에 대해서도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아울러 알려 주는 지 의심스럽다. 만화는 물론이거니와 대중잡지들도 3분의 2는 그림과 광고, 그리고 온통 여체(女體)의 사진들로 채워져있다. 순결과 여체의 나체사진들과는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일까?

누군가를 가르치려 할 때는 우선 진실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 자신의 행동과도 일치가 되어야 비로소 가치가 있게 된다. 두 얼개를 가지고는 아무 것도 가르칠 수 없다.

현재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주변환경이나 도덕성이 사회적 순결을 잃었노라 호소하는 아이들의 고민을 수용할 수 있게 되어있는 것인지 문제이다. 따라서 그들이 순결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우선 정화해야 할 것이다. 사람은 진실되게 살아야 하고 노력하면 바라건 안바라건 수확이 있어야 한다. 설혹 주변이 혼미(昏昧)를 거듭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중에서도 누군가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의로움을 스스로 구현해야 한다. 그러한 사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어른들은 순결은 마땅히 지켜져야 한다고 알려줄 수 있고 따르지 않았을 때 꾸중을 할 수 있다. 순결은 여자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그러나 남자에게는 자연적인 생리현상으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락여성이 불가피한 존재이다. 여권을 신장한다는 뜻에서 윤락여성이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한다는 여권운동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윤락여성은 계속 존재하고 그들은 엉뚱하게 아내가 엄연히 있는 어른들의 상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자니 젊은 남성은 상대를 구하기 어렵고 따라서 아는 것 같으면서 실제로는 아무 것도 모르는 순진하고 어린 여자아이의 순결을 잃게 하고 있는 것이다. 남녀가 동등하게 남자도 순결해야 한다고 형식적으로 줄라댈 수는 없다. 자연현상은 자연현상이니까 다만 이런 욕구의 상대로 순진한 여자아이들의 순결을 다쳐서는 안된다는 얘기인 것이다.

또한 순결의 상실이 대부분 소녀들의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사회에서 마음의 순결을 더 소중히 보아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회의 누군가가 무지로 인해 순결을 잃게 된 여자아이, 적어도 그 행위로 쾌감을 느낄 수 없었던 아이의 피해를 아이에게만 돌리며 추궁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불공평한 처사이다.

더구나 그러한 첩없는 일로 임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꿈쩍하기까지 하다.

남녀아이들에게 남녀생식생리의 기본이라도 분명하게 가르쳐서 어느 연령까지의 남녀는 발달과정에 차이가 있어서 남자는 욕구를 느끼고 욕구를 채우는 일로 쾌감을 느끼는데 반해 여자아이는 월경을 하고 배란현상이 있어 행위를 하면 임신이 될 수도 있으나 그 행위로 쾌감을 느끼지는 않는다는 점, 여자 아이들이 자칫 잘못하면 윤락여성이 하듯 남성의 욕구를 충족시켜 쾌감을 느끼려는 행위의 상대역을 해주는 것이라는 점 등 필요한 사항들을 분명히 가르치고 어른 스스로가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그 가르침이 받아들여지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아이가 한 번의 실수를 했다고 할 때 그 책임을 나(어른)와 함께 나누고 아이만을 몰아대지 않아야 할 것이다. 불행히 임신이라도 되었을 때 어른이 앞장서서 책임지는 행동과 함께 처리를 하고 아이는 되도록 고통을 적게 가질 수 있도록 상대적인 처녀성, 마음의 순결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어야 한다. 무지에서 벗어났던 어릴 때의 일로 평생 화를 입어야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순결을 잃었어요”. 이 한 마디가 얼마나 애처로운 얘기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열 일곱살의 미혼모



‘젊은 사람들의 성문제’ 운운하면 곧 “미혼모”로 직결시키려는 경우를 종종 본다. 미혼모가 성문제의 대표는 물론 아니다. 과연 몇 명이 결혼과는 관계없이 성행위를 했고 그 중 몇 명이 임신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미혼모가 하나 생길 때 주변에 몇 배 많은 수의 혼전의 성행위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뿐 아니

라 “미혼모”라는 명칭을 정확하게 임신을 끝까지 이어가 출산을 한 경우라고 정의한다면 미혼여성으로 임신을 했었지만 도중에 중절하였다는 수까지 다시 분류가 되어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미혼모라는 말은 미혼여성이 임신을 한 것을 총칭하고 있고 도중에 중절한 예까지 포함을 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그럴 경우 수가 훨씬 많아지고 실제로 아이를 출산하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경우는 그 중 극히 적은 수 뿐이다.

미혼여성이 성행위를 했는가, 임신이 되었는가, 그 임신이 끝까지 지속되었는가 등 구분이 되면서 점차 수가 감소되지만 상황이 나 동기는 다 같다. 행위를 가졌는데 임신이 안되었다면 불행중 다행이었던 경우고, 임신이 되었으나 일찍 중절을 했다면 잘못은 했으나 처리는 신속하게 했다는 경우다. 임신을 끝까지 끌고 간 경우가 가장 어리석었다고 보여진다. 중절을 반대하는 종교인들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보아 그 아이를 출산해야 한다고 주장은 하지 못할 것이다. 태어나 영아의 생명이 대단히 존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임부인 어머니의 생명보다는 덜하다. 순간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10대의 여성이 임신을 했다하여 아이를 혼자 낳아서 길러야 한다면 이 소녀는 한 번의 잘못, 그것도 무지에서 초래된 잘못으로 평생 어쩔 수 없는 짐을 지고 살아야 하는 셈이 된다. 견디기 힘든 일이고 그러자니 또 다음의 문제가 생긴다. 아이를 버리든가 심한 경우 죽이기까지 한다. 어쩌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를 수도 있다.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젊어서 혼자되었다는 경우도 이제부터의 긴 삶을 혼자 견디어나가기란 쉽지 않다. 하물며 어처구니 없는 하루밤의 행위로 평생을 희생해야 하는 일이라면 너무 가혹한 벌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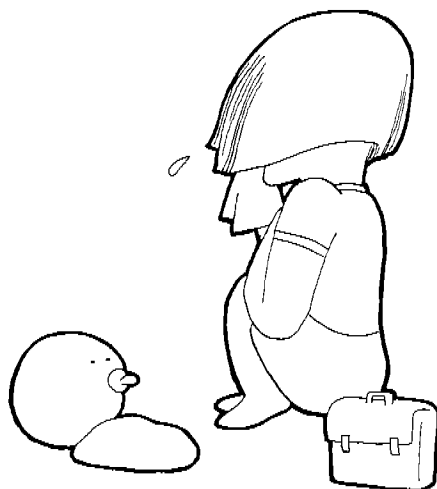
젊은 남녀는 쉽게 어울리고 서로가 상대를 제대로 모르는 채 일을 벌리게 마련이다. 남자는 여자를 모르고 여자는 남자를 모른다. 각기 “나”를 기준으로 나와 같을 것이라 생각한다. 여자는 이성교제를 무—드를 즐기고자 하고 상대도 그러려니 한다. 남자는 여자도 성숙할 만큼 성숙했으니 알만한 것을 알겠지 하여 여자가 무심코 손을 잡으면 그것이 행위를 원하는 신호인 것으로 착각을 한다. 자신에게 주체하기 어려운 욕구가 있는 것과 같이 당연히 상대도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나 이와 비슷한 감정이나 욕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저항하는 여자의 태도를 보고도 여자라면 조금은 그렇기도 할테지, 그래야 하는 것이겠지 하며 적지않게 강압적으로 행위를 시도한다. 또 이 때 남자의 욕구에 일단 불이 붙었으면 웬만해선 이것이 도중에 꺼지지는 않는다. 그 때문에 남자는 꽤 무리라고 생각되는 태도로 임하기 마련인 것이다. 결국 동상이몽속에서 행위는 이루어지고 여자는 어처구니없어 하지만 이미 었지러진 물, 이럴 경우의 상대가 반드시 같은 나이 또래만 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아버지 같고 아저씨 같은 평소 대단히 점잖아 보이던 어른이 별안간 변신을 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세상에는 “집밖에 나가면 아버지와의 사내놈은 다 도둑놈이라 생각하라”는 말이 있기도 하다. 여자들이 멋도 모르고 까불다 걸려드는 경우는 적지 않다.

성행위가 있었으면 임신의 가능성은 충분히 각오해야 한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는 임신에 필요되는 정자나 난자의 생명력이 강해서 보통 어른들의 경우에 비해 임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 상태를 임신력이 강하다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단 한 번의 행위로 쉽게 임신이 되기도 한다. 임신은 행위가 있고나서 있어야 할 월경이 없어지는 일로 알 수 있다. 월경은 원래 태아가 성장할 수

있는 영양분을 준비했던 것으로 임신이 안되면 월경으로 나오나 임신이 되면 영양분이 필요하게 되어 월경은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다. 월경이 예정날에 없었는지 10일부터 14일 정도에 소변검사를 하면 임신여부를 알 수 있는데 한 번 양성이나 음성인 것으로는 정확하지 않으므로 2회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보다 더 새로운 방법이 있기도 하나 이 정도로도 늦지는 않다.

성행위를 하였다고 반드시 임신이 되는 것이 아님은 누구나 알 것이나 그렇다고 너무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시일을 끌면 손을 쓰기 어렵게 된다. 임신일 것이라며 과민하게 걱정을 하면 책에서 본 것 같이 공연히 느긋거리는 것 같기도 느껴지고 반대로 무심하게 임신여부에 관심을 안두었을 때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세월이 가기도 한다. 임신을 하였을 때 입덧이 생기는 일은 임신 10주 이상이나 되어야 하고 또, 많은 경우 정서적인 차원에서 느끼게 되므로 입덧이 있기를 기다려 임신여부를 알려는 일은 공연히 시기를 늦추는 일이 될 수 있다. 월경이 없어지는 시점에서 이미 임신 4주가 되고 2주 뒤에 뇨검사를 한다면 6주인 셈이다. 이 시기에 처리를 하면 쉽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어떠한 상태에서 든 일단 일이 일어났고 더구나 임신까지 되었다면 이는 이미 보통일이 아닌 것이다. 누구와도 상의를 하지 않고 혼자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혼자서 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것은 어머니다. 어머니는 펄펄 뛰며 야단을 칠 것이나 세상에서 가장 딸을 사랑하는 분이다. 어처구니 없고 분하단 생각이 잠시 지나면 가라 앉으므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처리를 해 줄 수 있다. 산부인과를 찾아가도 어른이 그것도 어머니가 데리고 가면 의사의 입장에서든 안심하고 처리를 해 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으로는 인공적인 중절(유산)은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심성이 있는 의사는 이러한 수술을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은 안된다고 하며 어찌보면 우리나라의 실정으로는 현실성이 없는 소리를 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혼·미혼 여성을 막론하고 많은 숫자가 이 수술을 받고 있으므로 의사들의 기술은 좋은 편인데 때로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얕은 기술을 가지고 마구 하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도 단단한 보호자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머니가 가까이에 안계실 경우에는 언니나 그 외의 집안 어른에게 털어 놓아야 한다. 처음에 말을 꺼내기는 어려우나 두 번 세 번째의 잘못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용기를 가지고 털어 놓아야 하는 것이 또 보호자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든 내 딸 내 동생 내 조카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임을 평상시 마음먹고 있는 것이 불행을 더욱 심각하게 안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앓차 하는 순간의 잘못일 수 있어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으나 잘못하면 2차 3차의 잘못으로 끌려가 더 한층 구렁에 빠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노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을 때는 아직 태어나 부속물이 크게 성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조작이 가능하다. 월경조절법이라고 하여 주사기를 크게 한 것 같은 기계로 간단하게 처리가 되고 후유증도 가장 적다. 임신된 사실을 친구에게 알리는 일은 별로 좋은 일이 못된다. 친구가 우선은 쉽고 동정적이지만 그는 아직은 성장과정에 있어 판단을 그르치기 쉽고 또 웬만해선 이런 비밀을 지켜주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끝내 하는 수 없는 경우 아니면 친구에게 얘기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

임신이 되었음을 알면서 우물우물 되도록이면 혼자 약을 먹는 일로 없애보려고 시기를 보내면 문제는 한층 어렵게 된다.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태아는 맹렬한 속도로 성장해가고 그 부속물 또한 그렇다. 혼자 이 약 저 약을 먹어도 절대로 유산은 되지 않는다. 유산을 시킬 수 있는 약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용되고 있지 않고 성행위 후 3일 이내에 먹는 약이 나라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으나 부작용이 심하여 반드시 입원을 시켜서 투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월경이 없는 것으로 임신임을 알아채게 된 때에는 이미 이런 시기는 지나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할 생각은 안하는 것이 옳다. 그뿐 아니라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는 그간 먹었던 약이며 상태 등을 정확하게 의사에게 말해 주어야 한다. 혹 날짜라던가 먹은 약 등을 비밀로 하고 털어놓지 않

으면 그 때문에 의사가 오진을 할 수도 있고 그 말만 믿었다가 막상 시작해보니 상태가 다르더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게 된다.

임신이 진행이 되어 12주가 넘으면 원칙적으로는 수술을 안하는 것이다. 임신이 가장 안전한 시기이므로 임신을 없애기는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되기 때문이다. 임신 4개월부터 7개월 초까지는 유산은 안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오히려 조금 더 견디다 7개월 이후에 유도분만 형식으로 조산을 시킬 수 있는데 이 때는 어쩌면 아기가 살아서 나올 수도 있어 더 큰 문제를 안게 되기도 한다.

미혼여성이 임신을 끝까지 이어가는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우선은 기회를 놓쳐서 의사들이 유산을 거부하는 경우로 임신의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아이가 크게 성장하여 배안에서 태동(5개월 말)을 하게 되어서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인 경우와 혼자 처리해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했으나 실패했고 의사를 찾았을 때는 비용이 많이 든다거나 이미 시기가 늦어 모체가 위험하다며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하나이고 다음은 성행위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루어져 여자로서는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아이를 출산하고자 할 경우이다. 이 때에 남자 측에서도 같은 것을 원하고 있다면 이 경우는 문제가 없다. 결혼식이야 올리건 못 올리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 어려운데로 부부로서 살면서 아이를 길러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령이 아직 10대라고 한다면 부모가 승인하지 않고는 결혼이 성립안될 것이기도 하거니와 아직은 결혼을 생각할 시기가 아니고 자기성숙에 힘을 기울일 때이기도 하다. 결혼으로 공부를 중단하거나 직업을 놓치거나 하면 자신들이 미처 성숙하기도 전에 또 다른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일이 되므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라 할 수 있다.

또 고의로 임신을 끌어가는 경우, 상대가 성인인 경우가 있다. 마땅히 자신과 태어나는 아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여 아이를 볼모로 삼은 경우이다. 이 때에도 상대가 충분히 그럴 생각이 있다면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상대에게 이미 가축이 있고 어쩔 도리가 없는 경우라고 할 때는 일은 문제가 꼬리를 물어야 하는 일이 된다. 아이는 내 소유물이 아닌 것이다. 아이는 아이대로 행복하게 태어나 생활해 갈 권리를 가지고 있다. 어머니의 감정으로 처리될 수 있는 현상은 아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일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데 아이를 분만할 때까지 끌고갔을 경우다. 누가 책임지고 기를 것도 아니고 그럴 뜻이 없는 데도 배가 불러오는대로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체로 이런 때는 같은 형태인데 베에 복대를 하고 남의 눈에 띄이지 않게 끔뽏 뚫어서 비밀에 부친다. 아이는 이래저래 잘 성장하지 못하므로 어느 날 비교적 수월하게 분만이 된다. 아이의 처리에 고심한 나머지 여러 가지로 범죄와 이어지는 행위를 하게 된다. 실로 캄캄할 사이의 행동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순간의 잘못 뒤에 여러 차례의 잘못이 이어져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잘못을 깨달았을 때 감출 생각부터 할 것이 아니고 구원의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 주변에는 찾아보면 나름대로 여러 길이 열려 있다. 자신이 소속한 곳에도 있을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의 여기저기에서도 손길을 뻗치고 있다.

임신은 비밀에 붙이려해서 불려지는 사실이 아니다. 하루하루 몸의 변화가 생긴다. 사람은 수정된지 9개월 7일인 280일만에 출산을 하게 되어있다. 결코 어물어물 넘어갈 일이 아닌 것이다. 문제가 문제를 물어 꼬리를 잇는 일은 처음 순간의 잘못을 어마어마한 잘못으로 이끄는 결과이다. 성행위를 가졌던 일은 대체로 여

자쪽의 잘못이 아닐 수 있다. 그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러나 임신에 대한 처리를 잘못하는 행동은 용서받기 어렵다. 태아에게 용서 못 받고 태어난 아이가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나마 임신 6주, 8주 사이에 흔적이 분명하지 않은 태아의 경우라면 또 조금은 마음이 가벼울 수 있다. 멀쩡한 아이를 출산하여 버리거나 없애는 일에 비해서는...

한 번의 잘못이 한 번으로 끝나기 위해 용기를 가지고 구원의 길을 찾는 것만이 그나마 속죄의 길일 수 있는 것이다. 아이의 생명도 고귀한 것이다.

성폭행 사회의 책임인가



폭행이라 하면 “사납고 거친 행동이나 몸가짐” 또는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일”이라고 되어있다. 더러는 그 뜻을 제대로 모르는 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더구나 성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젊은 여자아이들의 경우에 그러한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렇다고 쉽게 누구에게 물을 수도 없는 얘기일 것이니 우

물우물 지나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성폭행이란 바로 강간(強姦)을 말하는 것이다. 듣기 좋게 하느라 성폭행이라 하고 있을 뿐이다. 강간이란 폭행을 하며 강제로 성행위(간통이라 한다)를 하는 것을 말한다. 말하자면 사람도독인 셈으로 여자의 몸을 도둑질하는 일이다. 상대의 의사없이 폭력으로 다스려 행위를 하는 일인데 요즘 젊은이들의 범죄에는 으레 뒤따르는 행위이기도 하다. 상대의 연령도 별로 따지지 않고 결혼 여부도 무시하며 심할 때는 임신을 한 임부도 겁탈을 한다. 절도를 하는 일과 성폭행을 하는 일 어느 것이 더 심한 벌을 받게 되는지 법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단순히 돈이나 물건을 가져가는 일과는 비할 바가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 것이다. 직접 당하지 않은 사람은 신문이나 TV뉴스에 나오는 얘기를 보고 들으며 “끔찍해라”, “안되었다”하면 그것으로 잊을 수 있다. 주변에 하도 끔찍한 일이 많아서인지,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신경이 크게 무디어져서 웬만한 사건에 별로 놀라지 않는 기색들이다. 그러나 당한 당사자는 어떠한가. 꿈땡고 순결한 미혼 여성이 이름도 모르는 도둑놈에게 몸을 도적맞았다. 순결을 어처구니 없이 잃은 것이다. 신문들은 그나마 보호를 한다고 여성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는다. 그러나 잘못되면 그 행동 하나로 그 여성은 평생을 낙인찍힌 여성으로 남을 수도 있다. 더구나 신문에 났으니 이름을 안 밝혔다고 그 여성을 아는 사람이면 이런 사실을 다 알게 될 것이고 주변의 입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그 뿐 아니라 이 여성이 임신을 할 수도 있다. 인공적인 중절을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도 이럴 때의 임신까지 지속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못할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에서는 “강간 또는 준강

간”일 경우 인공적인 중절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생겨난 아이도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런 태아에게 죄가 있을 리는 없으나 여하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처지는 아닌 것이다. 홍콩에 이러한 실례가 있어 행정부와 의회가 여러 날 이전을 줍히지 못하였던 예가 있었다. 아기인 즉 17세의 고아 소녀가 강간을 당했고 이로써 소녀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 소녀는 물론 아이를 기를 수도 없거니와 그럴 의사도 전혀 없다. 그러나 당시 홍콩의 법으로는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유산을 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국회의원들은 법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행정부는 현실이 불가피하므로 부득이 유산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여 팽팽히 맞선 채 여러 날을 지냈다. 준법정신이 철저한 영국식 사고방식에 입각, 결론은 아이는 출산하여 즉시 미국인 부부에게 양자를 준다는 방법으로 해결을 보는 것으로 낙착이 되었었다. 이 소녀는 자신에게 전혀 잘못이 없이 뜻없는 출산과정을 가졌어야 했다. 이런 사건이 뒤에 이 소녀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게 될 것인지 그 당시로서는 어떻게든 예측은 불가능 하였으나 몸을 도둑맞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아이를 임신했다 없애버리는 일로서 그 여성의 아픔은 평생 갈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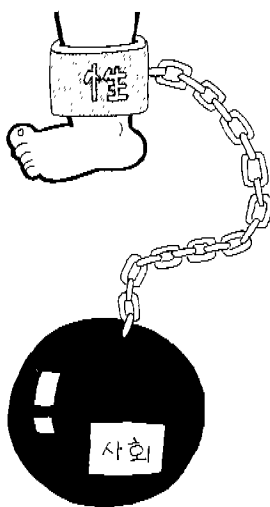
또 있다. 남의 집에 침입하여 범죄를 일으키는 도둑이고 보면 자신의 몸가짐을 정결하게 유지해왔을 리 없고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 왔는지, 어쩌면 못된 병을 옮겨주었을 수도 있다. 성병은 단 한번의 접촉으로도 전염이 될 수 있다. 치료는 간단하지 않으나 시작은 그렇듯 간단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한 번의 폭행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셈인데 그 행위로 가해자는 불과 10초

안팎의 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되며 결과가 어떠할 것이라는 점 등은 전혀 머리속에 남아 있지 않은, 심한 표현을 빌면 소변을 한 번 보았을 뿐이라고 여기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기혼부인의 경우 죄없이 이혼을 당하는 일이 일반적이다. 보호를 못해준 남성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현재 우리는 남녀가 동등하다고 한다. 아닌게 아니라 옛날에 비해 여성들의 개방이 현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생리적인 현상은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달리 변하고 있지 않다. 그 생리현상 중에 사춘기를 지내면 남자는 정액을 밖으로 방출하는 사정현상을 갖고 사정으로 순간적인 쾌감을 느끼게 된다. 이 쾌감은 배설에 따르는 쾌감이 기본이 되고 있어 여성들의 경우에는 대변이나 소변을 배설하는 경우 시원하다고 느끼게 되는 현상과 맞먹는 현상이다. 여성도 대소변을 한 참만에 보면 한층 시원하게 느끼고 대소변을 못보고는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다. 남성이 사정과정을 안가졌다 하여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사정을 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어 해결이 된다. 동정이나 유정이 그러한 경우다. 여성의 경우에는 1개월에 1회씩 월경을 경험하고 이 때에는 난자가 배란되고 있으나 월경을 치루는 일은 쾌감을 수반하지 않는다. 즉 여성이 성욕구를 알고 욕구를 채우면 쾌감을 느끼게 되는 일은 훨씬 뒤에 다른 기전(機轉)을 통해 생기게 되어 있다. 남성이 사춘기부터 정액을 방출해야 하도록 되어 있어(여성의 대소변 배설과 비슷함) 이를 배출하면 쾌감을 느끼는데 반해 여성은 월경을 치루면서 그러한 쾌감을 못느끼고 있는 것인데 쾌감은 못느끼지만 이런 상태(월경이 있고 난자가 나오는)에 있을 때 성행위가 있으면 행위가 좋았든 안 좋았든 관계없이 임신이 가능한 것이다. 그 부분에서 여

성과 남성은 생리현상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데서 젊은 남녀는 왕왕 자기의사와는 달리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 여하튼 남자는 사춘기부터 배설해야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여자의 월경이 1개월에 1회라는 것과 비교하면 크게 다르게 매일 또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배설을 하고 싶도록 고이게 되어있고 고인 정액을 배출하는 일로 쾌감을 느끼게 되어 있다.

이러한 생리현상의 차이는 어제 오늘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사람도 동물의 종류에 속하고 있는 데서 일어나는 현상의 하나로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인 것이다. 이런 상태가 과거에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었는데 반해 최근에는 사태가 달라져 한층



문제점으로 대두되게 된 것이다. 즉 과거의 우리나라(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비슷하다)는 남성들이 조혼을 하였다. 대체로 10대 후반, 때로는 10대 초반에도 이미 결혼을 하고 있었다. 결혼할 때 사춘기를 지냈을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아닐 수도 있으나 사춘기를 맞이하는 때가 되어도 이미 아내라는 여성이 곁에 있었으므로 따로 성행위 대상을 고르지 않아도 되었다. 이럴 경우의 성행위는 쾌감을 추구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대를 이을 자손을 갖고자 하는 이유가 앞서 있었으므로 한층 당당하고 축하할 할 만한 당연한 행위였다. 쾌감은 이에 수반되는 일이라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런 시대는 또 봉건주의로 엄격한 남존여비의 시조(時潮)였으므로 남성들은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행동을 별 제약없이 할 수 있었고 성행위에 수반되는 쾌감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번에는 대를 이을 아이를 목적으로가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행위를 원하여 그러기 위해 마련이 되어있는 기녀들과 행위를 가져 성의 쾌감을 누려왔다. 기녀 뿐 아니라 그런 뜻의 상대는 얼마든지 있어 온 것인데 공창이며 사창들이 공공연하게 있어 고가로 놀 수도 있고 반대로 아주 싸게도 놀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남성이 이러한 행실로 집을 비우고 가산을 탕진하여도 사회는 물론 가정에서도 이에 투기심을 가지면 안되는 것으로 되어있었고 이런 남성을 오히려 호탕한 남성다운 남성으로 취급하기까지 하였다. 이런 환경에서 남성들은 성을 구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0년전까지만 해도 첩을 거느리는 일에 큰 저항을 갖지 않았었다.

이러한 사회상은 서구문명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로 크게 바뀌었다. 우선 창녀라는 윤락여성을 여권신장이라는 견지에서 정식으로는 없앴다. 돌이켜보면 이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남성은 성욕구가 거기에 있는데 여권 운운만으로 마치 당장에 사회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남성들의 성욕구를 감소시키는 조치가 앞서 있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을 경우 창녀를 찾던 성욕구의 행방이 어찌 될 것인가 생각을 했어야 다망하였다. 여하튼 정식으로는 (또는 표면적으로는) 창녀는 없어지고 예외로 미군부대 주변의 기지촌에만은 허용되는 실정이 되었다.

사회상의 변화는 이런 일뿐 아니고 많은 현상에 변화를 가져왔다. 남녀동등의 물결에서 많은 여성들이 집밖으로 나와 거리를 활보하게 되었다. 학교에 가고 직장에도 진출하여 이제 아무런 거리낌없이 남성과 똑같은 생활을 해가고 있다. 남녀의 결혼연령이 크게 달라져 남성은 평균 초혼연령은 28세가 넘고 여성도 24세가 넘는다. 남녀의 교제도 꽤 활발하게 돼나간다. 남성들에게 성욕구가 있다면 이런 환경속에서 부단히 자극을 받고 있는 셈이 된다. 많은 불상사가 일어나고 일반여성들이 과거의 창녀들이 하던 역할을 대신 하게 되기도 한다. 남성들은 욕구를 주체못해 핑계만 있으면 그를 충족시키려 한다. 그러면 여성들은 자칫 그것이 애정의 표현이거나 하고 하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물론 그 중에는 진정한 애정의 표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애정이라기보다는 배설과 이에 따르는 쾌감을 맛보겠다는 의도가 들어 있다.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세태속에서 한층 이들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소비문화와 향락문화이다. 오늘날의 사회나 가정은 청소년들의 모든 욕구를 모조리 들어주고 있다.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지체없이 받아들여서 필요하다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물건을 눈앞에 대령하고 있다. 컴퓨터가 필요하다면 컴퓨터가, 차가 필요하다

다면 자동차가, 해외여행을 가겠다면 여행을 위한 비용이 내가 못 해본 것에 대한 유감을 아이를 통해 이루려는듯 안된다는 말 한마디 없는 부모들로부터 충족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습게도 가정에서 부모가 억제하기 바라는 부분은 오직 “성” 문제뿐이다. 우스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주변에 나돌고 있는 각종 인쇄물이나 보이는 것, 돌리는 것들은 어디를 막론하고 성충동을 불러일으키는 아슬아슬한 그림과 자극제들이 즐비하다. 그런데도 신체가 건강하고 영양이 충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충동에 흔들리지 말고 참으며 솔기롭게 넘기라고 애기하고 있는 것이다. 때로는 집에 있는 비디오 테잎 중에도 부모 자신들용의 성에 관한 비디오 테잎이 있을 수도 있고 이미 아이들도 이를 보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른들은 눈을 감고 귀를 막은듯 아이들에게는 성은 억제하라 하고 있는 것이다. 모순이라 하기에다 어처구니가 없다.

아이들의 교육이 거의 어머니에게 맡겨져 있다는 사실이 성교육에 있어 더욱 비현실적이며 모순을 야기시킨다. 어머니들은 실제로 성을 잘 알고 있지 못한 상태이며 더구나 미혼남성의 성의 발달은 한층 모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한 어머니가 아들을 길러야 할 경우 성교육을 제대로 시키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그저 아무 일도 없기만을 바랄 뿐 아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어떤 욕구를 가졌는지 알 바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은 현실을 우리는 안고 있다. 일반적인 경향이 이러하고 가정이 이러하여 일반 청소년들도 많은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에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범죄를 일으키게 되는 청소년들의 경우라면 자신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

않을지도 모른다.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일이나 차제에 몸을 훔치는 일에 대단한 차이를 느끼지 않을 수 있다. 사람의 생명의 존귀함을 모르는 그들에게는 물건을 빼앗는 일이나 몸을 빼앗는 일에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하물며 몸의 경우야 실제로 빼앗은 것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 어른들도 인신매매니 창녀니 등으로 재미(?)를 보고 있는데 돈이 없는 우리야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대상과 관계를 가져보는 일이 뭐 그리 나쁘겠느냐 생각할 수 있다. 물론 범죄를 저지르는 그들이 그런 것을 일일이 머리 속에서 따져가며 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개는 소설 “죄와 벌”의 주인공과 같이 나름대로는 자신의 철학이 이치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뒤에 자신이 생각해보도 왜 그랬는지, 어떤 논리도 성립될 수 없는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이것 저것 가릴 형편이 아니었던 것이다. 죄를 짓고 잡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계산까지 되어 있지 않을 것은 당연하므로 집어가려는 물건이나 대상이 있고 욕구가 있으니 채우자는 생각에 성 폭행을 하는 것이고 정상인의 생활에서와 같이 따지고 가릴 일은 아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이 어떻게 그들만을 나무라는 일로 끝날 수 있을 것인가? 그들도 분명히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고 순수하기만한 눈빛으로 유년기를 성장해 왔을 것이다. 가정의 형편이 어떠하였기에 그들이 어느 시기부터 정상궤도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는지, 그런 그들을 우리 어른들은 성심껏 잡아두려 했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성”의 문제 하나를 두고 생각해봐도 과거에는 그 정도 연령이면 결혼도 하였을 것이고 값싸게 살 수 있는 여자도 있었을 것이며 그렇게 해서 욕구충족을 시켜도 누구도 나무라지 않았었다.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면서 어느 때부터 청소년들의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조치는 전혀 마련하지 않고 덮어놓고 슬기롭게 대처하라고만 이르는 형편이 되었을까? 그러면서 어른들은 한층 질고 노골화된 성을 즐길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으니 누가 누구를 나무랄 수 있을 것인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 안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 할 수 없을 때 참고 견디기보다는 저지르고 보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사회의 책임인 것이지 누구에게 돌릴 수 있는 과제이겠는가 싶다.

우리는 좀 더 진실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형식적이고 이중적이지 않아야 할 것이다. 숨겨진 것 같으면서 숨겨지지 않은 어른들의 모습에서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며 성장해가는지, 언제까지 진실을 외면하려 하는지, 딱한 것은 바로 그 어른들 아니 어쩌면 어른이라고 부르기조차 어려운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빚어내는 이 사회가 바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닐까?

지금 댁의 아이는



나는 16세의 소녀입니다.

모월 모일에 월경이 있었고 모월 모일에 성행위를 했습니다. 혹시 임신일까요? 우리 부모님은 저를 아직 순결한 소녀로만 알고 계십니다.

출생 후 365일씩을 함께 살아온 아이다. 짧은 것 같기도 하고 길

있던 것 같기도 한 세월을 함께 지내온 처지에 자식을 바라보는 눈도 때론 다 큰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찰이 없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한 가족을 이루고 살 때 별로 대화를 나누지 않으며 생활하는 것이 보통이다. 서로가 현재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해가고 있는지, 의식주는 함께 하고 용돈을 주며 늦은 귀가를 야단치면서도 아이가 무슨 책을 읽고 어떤 친구와 사귀며 학교에서의 생활이 어떠한지 알려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가족끼리 어떤 행동에 대하여 서로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잘 주고 받지 않는다. 그렇게 느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만한 것은 피차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일일이 입에 담아 얘기하는 일은 남에게 하는 일 같고 쑥스러워 못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가족이고 부모자식 사이이거니 하며 생활한다. 결국 정신적인 교류는 없이 사는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부모님의 말씀이라 하면 절대 복종을 해야 하고 거역하지 못하였던 관습이 남아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어머니들은 아버지나 자식들에 비해 학교공부를 많이 안했었던 과거의 역사적 배경도 있으며 이러한 모든 여건들로 인해 가족끼리는 심중의 생각들을 나누지 않는 습성이 있어왔던 까닭이라 해야 할 것이다.

세대의 차이가 있는 것은 어느 시대고 마찬가지로 일 것이나 근대에 이르러 반세기도 안되는 기간에 너무나 엄청난 문화권이 바뀐 탓에 더더욱 미처 따라가지 못하도록 간격이 생겨났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태에서 가족을 구성하고 살면서 겉도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다가 때로 엄청난 일들을 겪게 되기도 하는 것이 오늘 날의 우리 가정이라 할 수 있다. 암전하고 착실하기만 한 것 같던 아들이 아이가 데모를 주동하였다고 들으면 부모는 어제까지 내앞에 있는 줄만 알았던 내 아이가 별안간 아주 멀리에 있었다

는 것을 알고 경악을 주체하지 못하게 된다. 아직도 어린애라고 여겨왔던 딸아이가 임신을 했노라고 한다면 아마도 어머니는 실신을 할 것이다. 아이는 그것이 두려워 죽어도 어머니에게는 말을 못한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결혼풍습은 아직도 절반은 중매결혼이다. 조건들을 맞추어 어른들이 이러구저러구 하면서 맞선을 보고는 몇 달사귀다 “그저그렇다”고 느끼면 결혼을 한다. 누구나 다 해야 하는 거니까 나도 한다는 것이다. 열렬하게 사랑을 해서가 아닐 수 있다. 결혼은 많은 경우 가정과 가정이 사돈관계를 맺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여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경우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별 탈없이 그저 그런대로 살아간다. 결국 따지고 보면 자기 감정에 충실하지 못한 것인데 어찌면 성장과정에서부터 자신의 뚜렷한 의견을 가지도록 가르치지 않았던 탓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 “진실”이 결여된 채로 지내가는 수가 있다. 부부 사이가 그러할 때 가정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단순한 의식주의 해결에만 치우치게 되고 인간적이고 따뜻한 감정의 교류는 없게 된다.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사회는 이 “가정”에 크나큰 의미부여를 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라느니 가족을 위해서라느니 운운하며 유대를 강화할 것을 종용하곤 한다. 자의식이 뚜렷한 사람이 본다면 우습기도 하고 무척 진실성이 없어보이기도 할 것이다. 이런 속에서 생활하면서 자식들과 대화가 되는 것을 기대하기란 어렵고 따라서 의식주는 함께 하면서 각기 상대가 서있는 위치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내 딸아이는 자신의 모든 얘기를 내(어머니)께 한다. 남자친구와 사귀는 일도 다 얘기를 하는 걸”하는 어머니의 자랑도 헛 것일 수 있다. 이 남녀사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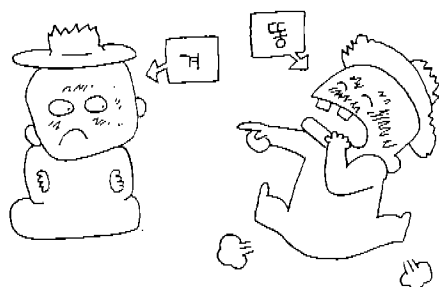
성행위가 이루어졌었을 때에도 그 사실을 어머니에게 얘기한다면 우리네 가정 형편으로는 딸 아이가 바보든지 아니던 가정자체가 막된 집안이든지 할 것이라고 여길 것이다. 제아무리 모든 것을 털어 놓는 아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만은 말을 못하게 되어있는 것이 상식이다. 우리 사회가 결혼하기 이전에 성행위를 갖는 일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상식적인 아이라면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알고 있을 것이다.

이같은 내용의 가족구성을 갖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대화가 있기를 바라기는 어렵다. 부모는 야단을 치거나 양보를 하거나 아니면 포기를 한다. 아이는 침묵을 지키거나 떼를 쓰거나 단념을 한다. 성과 관계되는 내용은 그것이 어느 수준에 있든지 주로 침묵으로 지나친다. 공부하는 학생일 때 이성친구를 사귀면 공부에 지장이 있다며 이유불문하고 반대를 하게 되어있으므로 아이는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고 철저히 비밀로 관철하려 한다. 그렇다고 하고 싶은 행동을 단념하지는 않는다. 거짓을 말할 뿐이다. 같은 반 친구끼리 놀았노라 하든지 독서실에 있었노라 하든지 부모가 그럴싸하게 납득할만한 핑계로 넘어가려 한다. 용돈은 대체로 책값이라는 명목으로 충당한다.

사춘기를 겪으면서 혼자 고민하며 갈등으로 불안간에 학교성적이 눈에 띄이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어른이 들으면 별 일 아닌 상태일테지만 아이들에게는 생명과도 바꿀만한 중대사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을 차마 부모에게 털어놓지는 못한다. 고민 끝에 자살을 하는 아이도 있다. 얘기를 털어놓았다면 자살을 할만한 사건이 전혀 아닌 것인데 감정이 격해있는 이 시기의 아이들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 있을 뿐, 절충이 되지 않아 한편으로만 몰고가게 마련이다. 평상시 진지하고 성적도 좋던 아이, 양전하고 내성

적인 아이의 경우에 한층 심하다. 고민을 누구에게도 털어 놓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고 이럴 경우 부모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신이 그 지경으로 몰려있으니 부모의 심중까지 헤아려줄 여유는 없는 것이 당연하다. 부모의 기대가 컸던 경우는 한층 그러하다. 자신의 실제수준은 50인데 부모가 보고 있는 수준은 100이어서 틈을 보일 수 없다고 느끼고 그럴 바에야 아예 눈앞에서 사라지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아리따운 소녀가 임신했을 때 그것은 부모에게 말할 수 있는 현상이 전혀 아닌 것이라고 소녀는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진실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으며 진실을 보여줄 수 없기에 문제를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



하고 있는 것이다. 평상시 대화를 나누었거나 또는 부모가 아이의 진정한 위치를 알아서 아이가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였다면 아이는 중압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고 “인간이란 대단히 약한 것이란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며 “그러니까 최선을 다 해 노력하는 것이지”하였더라면 아이의 가슴은 무겁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나 부모 역시 그 연령까지 살아가면서 그 생활을 전혀 연습해가며 살아온 것이 아니었으므로 부딪히는 일 하나 하나를 전부 경험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쉽게 자신의 경험으로 비추어 판단을 하게 되고 이 때에 그간 세태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생긴 문제의 해결이 어렵기도 하다.

원칙적으로 부모가 아이들의 성교육을 맡을 수는 없다. 맡을 바 꾸면 부모의 성교육은 말이나 강의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로 남의 집의 애기인양 대화하는 중에 필요한 지식을 흘려 주면서 어머니나 아버지도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단다 하는 식으로 아이가 슬그머니 들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부부가 남녀의 역할을 충분하게 해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부부생활이란 결코 치사하거나 죄스러운 것이 아니고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며 또한 성생활을 함으로 인해 너희들을 낳고 정성껏 기른다는 등 부부의 화목함을 보여주는 일이 바로 성교육이 되고 있는 것이다.

어느 경우건 우리 아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포르노잡지에도 관심이 있고 성행위에도 관심이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나 동정, 사정은 다 겪고 있을 수 있다. 가능하다면 주변에 아이가 부모에게 보다 쉽게 가서 호소를 할 수 있을만한 사람이 한둘 있을 수 있으면 가장 좋다. 할아버지가 멋있는 사람이면

이 역할을 할 수 있고 외삼촌이나 이모부, 이모, 외숙모 등 가까이 있는 분으로 인격적이면서 이해할만한 일은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사람, 때로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친구일 수도 있고 친구 이면서 의사이거나 집식구들을 돌봐주는 가정의(요즈음 새로운 분야의 전문의 역할을 하는 가정의와는 다른 뜻으로 가족들이 병이 났을 때 전반적으로 상의를 할 수 있는 가족속의 의사든지 아버지 친구인 의사든지를 지칭하는 것)라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의사에게라면 비교적 쉽게 얘기를 시작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이런 존재를 아이에게 알려주는 일만으로도 반 이상의 교육은 되는 셈이다. 아이는 부모가 뭔가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크게 안심을 하게 된다.

성폭행이다, 미혼모다, 누가 삼각관계에 있다 등으로 지상에 나오거나 끔찍한 범죄로 발표가 되어나올 때 우리 아이만은 절대로 예외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일은 금물이다. 우리 아이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다. 각오를 해야 하고 평상시 슬쩍슬쩍 예방책을 대화속에 넣어 주어야 하는데 이런 역할은 현재의 실정으로 보아서는 아버지의 역할이라 해야 할 것이다. 어머니는 성에 관한 아버지에게 비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도 못하거나와 아직도 우리나라는 적어도 성문제에 있어서는 남녀가 동등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교육부분에서도 아버지가 맡아주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요즈음의 자녀교육에는 아버지가 없어 문제가 된다. 아버지가 있으면서 없는 것이다. 아버지가 자신이 하는 일에 쫓돌려 자녀의 교육에 힘을 기울일 여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도 하거나와 아버지의 인생을 사는 철학이 자녀교육에 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돈만 벌어서 주면 너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내 시대는 공부만 하고

싫어도 돈이 없어 못했는데 무슨 당치않는 소리냐 하고 주장하는 아버지들도 많다. 이는 시작만 해놓고 마무리를 못하는 태도라고나 할까? 자식을 낳았으면 바로 길러야 마땅하다. 최근의 세대는 아버지의 그런 노력, 그런 성의까지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피하여서는 안된다.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 뒤에는 문제가정이 있게 마련이다. 문제가정이라고 하여 반드시 범죄와 연결되거나 남의 눈에 비추이고 있는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평범한듯 보이는, 오히려 일면 유복한듯 보이는 가정에 사실은 문제가 깊이 도사리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그런 일들이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전혀 안하고 있어서 한층 어렵다. 또 자칫 돈만 있으면 만사 문제가 없는 것이라 생각하는 일도 위험천만한 일이다. 더욱 안쓰러운 것은 부모가 제법 지식층 인사인 때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누구의 도움도 안받는다며 완고하게 거부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결국은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몰고 갈 수도 있다. 이럴 때 진정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이가 아니고 부모이다. 부모중의 어느 쪽인 것이다.

우리 집이라고 예외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여 아이들의 행동을 주의깊게 들여다 보면서 성의있는 대화를 나누고 되도록 자기 자신의 경험인 양 아이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럴듯한 사례를 들어 이야기해 주는 등 부모 특히 아버지는 정성을 다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해가면서도 그애에게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를 위한 마음의 준비도 아울러 해두는 것이 좋다. 아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 아이에게 소개해 주는 일도 중요하다.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할 때 자신이나 가정의 체면이 앞서서는 곤란하다. 아이의 장래를 위해 함께 서주는 성의가 필요하다. 거기까지가 부모의 책임인 것이다.